

甌鼎思想의 極致, 道通眞境

林泳暢*

目次

| | |
|---------------------|-------------------|
| I. 緒言 | 2. 大巡思想의 道通觀 |
| 1. 甌山과 鼎山의 思想的 連結相承 | 3. 道通의 修行 |
| 2. 甌鼎思想 4段階의 結晶 | 4. 道通의 結果 |
| II. 道의 定義 | IV. 眞境論 |
| 1. 道의 語彙의 考察 | 1. 悟道의 眞境과 可視的 眞境 |
| 2. 他宗教 思想에 나타난 道 | 2. 道通과 眞境의 結合 |
| 3. 大巡思想의 道觀 | V. 結語 |
| III. 道通에 關한 考究 | 1. 人間生活의 極致 |
| 1. 道通의 概念 | 2. 世界改造의 大理想 |

I. 緒言

유교에서 공자(孔子), 맹자(孟子)를 아울러 공맹의 가르침(孔孟之教)이라고 이르고 도교(道敎)에서 노자(老子), 장자(莊子)의 학문을 노장학(老莊學)이라고 일컫듯 대순진리회의 교의(敎義)를 증산, 정산양위를 합한 뜻으로 증정(甌鼎)사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통용되고 있는대로 대순사상이라면 그뿐일 것을 굳이 또하나의 명칭을 붙일 것이 있을까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종교교의로서 다를 때와는 성격이 다른 증산, 정산 두분의 자연인을 객관적 또는 학문적으로

* 전해사 교수

다를 때는 증정사상 내지 증정학(甄鼎學)으로까지 발전하는 것이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왜 이런 논의를 모두(冒頭)에 끌어 내느냐하면 증산·정산 곧 구천·옥황 양위상제의 교설에서 두분의 가르침이 원리에는 하나의 호차(毫差)도 없는 반면, 두분이 즐겨 쓰신 표현의 언사(言辭)에는 특징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두분이 공사(公事), 도수(度數), 해원, 상생등의 연구(言句)는 함께 사용했지만 정산이 종지(宗旨)로서 선포한 음양합덕(陰陽合德)같은 말의 사용이 없고 시학(侍學), 시법(侍法)의 공부법방이 없는 것을 보아 증산의 원칙론이 정산의 방법론을 만나서 합덕(合德)이 되고 조화(調化)를 이루고 상생(相生)하여 진경(眞境)에 도달케 하는 묘(妙)를 얻고 있으니 이로써 증정사상, 증정학, 증정교란 새로운 명사가 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1. 증산과 정산의 사상적(思想的) 연결(連結), 상승(相承)

위에서 말했듯 증산과 정산은 태극양의를 음양과 같고 인체의 정신과 육체같고 학문연구의 원칙과 방법처럼 증산은 도와 도의 원리를 선도(宣道)하고 정산은 그것을 귀납적(歸納的)으로 정리하여 교단과 도를 창교(創教), 창도(創道)하였다¹⁾는 이론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처럼 증산과 정산은 연결(連結)되었으니 연결(聯結)이 아닌 연결(連結) 곧 횡적(橫的)인 결합과 함께 종적(縱的)인 결합으로 상전(相傳), 상승(相承)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증산·정산 양위의 인세(人世) 출현연대의 시간적 기저에서의 계산일 뿐이고 대순교단의 교의적 해석 곧 신학적(神學的) 태도는 양위를 구천상제·옥황상제로 봉대 신앙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마치 무극(無極)이 곧 태극(太極)이라는 이론과 같이 증산, 곧 구천상제가 정산, 옥황상제와 양위 1체라는 교의로 표현될 수 있으며 학문체계 또한 양위의 교설이 별립(別立)된 것이 아니라 증정학 또는 증정사상으로

1) 宣道와 創道 : 대순진리회가 도조 증산을 선도주로 도주인 정산을 창도주로 보는 것은 증산은 도의 본질을 선포하였고 하나의 도단이 되게 하고 도의(道義)와 신조등을 간추려 정비한 것은 정산이었다고 하는데서 그렇게 설정하고 있다.

정립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반대의 이론(異論)도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순진리회의 종교사상은 대순사상으로 통용되는데 증정사상이란 말이 도로 이질감(異質感)을 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것이다.

그러나 따져보면 대순사상이란 대순진리회란 종교단체 곧 하나의 교단의 사상이란 뜻을 지니지만 한편 증산사상이란 말과 내용이 같은 것이다. 곧 그것은 전경에 있듯이

나는 서양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서 천하를 대순하다가 3계의 대권을 가지고 3계를 개벽하여...참화중에 묻힌 약소민족을 먼저 도와서 만고에 쌓인 원을 풀어주려 함이니라.²⁾

한데서 대순 곧 대순행(大巡幸)³⁾에서 비롯된 말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증산사상의 핵(核)이 되는 이말을 채택하여 공사기(公事記)⁴⁾를 편술한 이상호가 증산기원을 대순이라고 정해서 대순기원 ×년(大巡記元 ×年)으로 사용한 것이 효시(嚆矢)가 되는데 교단명칭으로는 대순진리회가 바로 이 대순사상의 대표격이 되어 있는 것은 아는 바와 같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의미에서 대순교단을 대표하는 종교사상은 대순사상인데 그것을 학술적으로 말할 때는 증정사상, 증정학이란 말이 더 타당하니 그것이 양위상제로 봉대하는 증산과 정산의 연대, 결합된 상승(相承)의 의미가 포함된 용어로서 가장 적당한 것이 아닌가하는 소견(所見)이다.

2. 甌鼎思想 4段階(단계)의 結晶(결정)

대순의 4개조로 된 증지를 거듭거듭 상고해 보면 그 자체 구성부터가 그 저 몇가지 교의(教義)를 나열(羅列)해서 기재한 것이 아니라, 우주 자연의 운행이나 사물의 진행원리 또는 인생의 일생이나 사업의 완성도 그리고 시문

2) 전경 권지 1장 11절

3) 대순행 : 순행(巡行)이란 말은 황제가 순행(巡幸)하는 것을 말한다.

4) 증산 천지공사기, 李相昊 著, 1926년 相生社발행

사조(詩文詞藻)의 구성방법이나 사교 논리의 원칙과도 일치되는 천의무봉(天衣無縫)한 구성, 조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먼저 자연 천후(天候)의 순환인 봄·여름·가을·겨울 곧 4계(四季)의 운행과 동궤(同軌)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첫째 음양합덕은 봄계절과 부합(符合)한다. 맹동(萌動) 생기(生起)하는 태극양의 기동(機動)이야말로 봄의 계절처럼 만물 생성의 모(母)가 된다. 둘째 여름의 산하가 녹음에 무르녹고 뜨거운 햇볕아래 맑은 물이 흐르고 온갖 동물이 뛰어 노는 대조화의 계절 여름이 신인조화(神人調化)의 권화(權化)처럼 펼쳐지는 것이다.

셋째 오곡백과가 결실하여 풍요와 유족, 평화와 안락을 상징하는 가을은 해원상생(解冤相生)의 실과를 맺어 우리에게 다가온다.

추수동장(秋收冬藏)의 말 그대로 가을에 오곡을 거두어서 겨울에 간직하듯 음양합덕의 씨를 뿌려 신인조화의 대화합속에 해원상생의 이상이 결실하여 도통(道通)으로 진경(眞境)의 대단원(大團圓)을 이루는 것이 종지가 자연순환의 도리(道理)와 계합(契合)되는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한 생애와도 대비(對比)되는 것이니 음양합덕을 인간의 출생과 유소년기(幼少年期)라고 하면 신인조화(神人調化)는 인격형성기(人格形成期)인 청년기와 같다고 할 것이고 해원상생은 장년기의 완벽한 활동 상태와 같고 도통진경은 노년기의 원만한 인격과 안정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 중국시 가운데 5언율시(五言律詩)·5언절구(五言絶句)·7언율시(七言律詩)·7언절구(七言絶句)의 시(詩)에서 각련(各聯)의 명칭을 율시(律詩)는 1·2구(句)를 기련(起聯), 3·4구를 함련(頷聯), 5·6구를 경련(頸聯), 7·8구를 미련(尾聯)이라고 하며 절구(絶句)는 1.기구(起句), 2.승구(承句), 3.전구(轉句), 4.결구(結句)로 부르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율시의 기·함·경·미(起頷頸尾)라는 말보다 절구(絶句)의 기·승·전·결(起承轉結)이 더 적합한 탓인지 한국서는 대개 율시에도 후자(後者)명칭으로 통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 4개 연구(聯句)의 성격과 대순종지의 4개조(四個條)를 대비(對比)할 때 이 또한 양위상제의 성의(聖意)가 여합부절(如合符節)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먼저 첫째인 음양합덕의 경우 이것이야말로 율시의 첫째 연인 기련(起聯) 절구(絶句)의 첫구인 기구(起句)처럼 우주의 생기원칙(生起原則) 그리고 종지의 초구(初句)가 되어 있는 도리(道理)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신기하다 할 것이다.

다음 승구(承句), 승련(承聯)처럼 태극의 음양합덕을 승계(承繼)하여 신인조화(神人調化)라는 우주의 대공사(大公事)가 개벽(開闢)되는바 이 종지의 구조가 우주, 인문(人文)의 극치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율(律)과 구(句)의 전련(轉聯) 전구(轉句)처럼 해원상생(解冤相生)의 인간의 최고 도덕, 그 행동강령이 크게 자리를 점령하는 절묘한 구도(構圖)를 보는 것이니 이 종지의 구경철저(究竟徹底)가 곧 성도(聖道)의 완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것도 그럴 것이 종지 제4조인 도통진경(道通眞境)이 4단계 구조의 정점(頂點)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시구(詩句)로 대비하면 결련(結聯) 절구(結句)가 되는 것이니 이 결련, 절구가 곧 인간완성, 세계완성 극치의 총결론이랄 수 있을 것이다.

이 종지에 심취해서 각구(各句)에 한자씩을 보태어 5언절구형식으로 해서 우리말로 풀어보았는바 우리말 가사에는 곡조를 붙이면 노래로 부를 수도 있을 것 같다.

宗旨歌

陰陽兩合德 神人互調化
 解冤而相生 道通是眞境
 (음양의 양의가 합덕을 하여
 신과 사람 서로가 조화이룬다.
 원한을 풀고 나서 서로 生하면
 대도의 진경이 활짝 열린다.)

또한 4단계의 종지를 희랍사람들이 설정한 3단 논법과 대비하면 첫째 음양합덕이 대전제(大前提)가 되고 신인조화, 해원상생의 소전제(小前提)의 경로를 거쳐 도통진경의 결론(結論)에 이르는 것파도 동궤(同軌)에 속한다 할 것이다.

아무튼 대순종지 4단계의 마지막인 도통진경은 이처럼 학문이나 시문의 결론적인 위치에 있는 동시에 종교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대순진리의 극치점이며 이상적인 정점(頂點)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지 곧 그 진경(眞境)에 이르기까지의 많은 과정(過程)이 종교적 지식과 신앙과 실천 [知·信·行]의 총합(總合) 총화(總和)인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이 도통진경의 진의(眞意), 진면목(眞面目)이 과연 무엇인지를 이해한 다음, 그로써 목표를 세워두고 신앙생활에 정진하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니 그것이 본고(本稿)를 초하는 이유인 것이다. 또 나아가서는 대순진리를 신앙하는 도인들 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이상하는 바 구경처(究竟處)가 그것이기 때문이다.

II. 道의 定義(정의)

도통진경이란 말도 사실은 도통과 진경의 2개 단어인 동시에 대순의 종지를 통해서 도통진경이란 복합명사(複合名詞)의 한 단어화 해진데 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때문에 여기서 도통에 대한 의미를 고구(考究)하는 동시에 진경의 대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천착(穿鑿)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먼저 도통에 대한 그것도 도(道) 그 자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도의 관통(貫通)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1. 도(道)의 어휘적(語彙的) 고찰

도(道)를 길이라고 풀이하지 않고 우주 또는 인간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관념은 우리 동양인에게만 있다. 동양에서 유도(儒道)라는 것을 서구인은 기껏 ‘공자의 가르침(孔子教) = Confucianism’이라고 밖에는 표현하지 못하고 불교나 도교도 Buddhism, Taoism이라고 해서 억지로 불교, 도교(이것은 다행히 우리말과 공통된다)로밖에 번역하지 못한다.

동양인 그 가운데도 우리 한국인은 누가 무슨 잘못을 범하는 일이 있으면 ‘그런 인도(人道)에 어긋난 놈’이란 말을 하고 또 ‘사람의 도리(道理)에 그런 법(法 = 이때의 법은 도와 통한다. 잘못되어 벌을 주는 것은 법보다 율(律)이란 말이 사용되었다)이 어디 있느냐’하게 된다.

한자의 道자는 우리말의 길이다. 길 道자가 있는가 하면 길 路자도 있다. 대개 합해서 도로(道路)라고 쓰고 있는데 따지면 道와 路는 길은 길인데도 개념의 차이가 있으니 道는 큰길(大道)인 반면, 路는 적은 길(小路)을 말하는 것이다.

道가 바로 큰길인 것은 한자의 고전(古篆)글자를 봐도 알 수 있으니 그것은 𡗗 이렇게 네거리의 십자도로의 모양이다. 말하자면 오늘의 신작로 네거리 바로 그대로다. 그러나 한마디로 도는 길이다 하면 될 것 같지마는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는 없으니 외국어의 경우 way 나 road라는 길로 번역할 수도 없고 truth(진리)라고 해도 못미치고 해서 공자, 노자의 도(道)를 번역할 수가 없어서 tao(道)라는 중국음 그대로 사용하고들 있는 실정이다.

그러니 다시말하면 도(道)는 도라는 말로 번역할 수밖에 없는 동양인 또는 동양철학의 독특한 용어인 것이다. 이처럼 동양의 독특한 또 동양인만이 이해할 수 있고 마음대로 응용하는 것도 도,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많은 속어(熟語)들을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본다.

도덕(道德), 도리(道理), 도의(道義)니 하면 사람이 지켜 나갈 도(道)를 말하는 것이고 도학(道學)은 도의 학문, 도심(道心) 도념(道念)이라면 선악을 판단한 바른 마음을 말하고 도사(道士) 도인(道人)이라면 도를 닦는 사람을 이른다.

천도(天道), 신도(神道), 공도(孔道), 불도(佛道), 인도(人道), 정도(正道), 교도(敎道), 선도(善道), 전도(傳道)등 그 밖에도 무수한 도(道)로서 성립된 말들을 일상에 대한다.

뿐만 아니고 언제부터인가 기술면보다 정신면을 더 치중하는 의미에서 의술(醫術)을 의도(醫道), 무술(武術)을 무도(武道)라고까지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예도(藝道), 다도(茶道), 서도(書道), 검도(劍道), 유도(柔道), 태권도(跆拳道)같은 말도 생겨났다. 거기에 가장 교차원적인 성인의 가르침(유럽에서

는 도를 가르침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서 teaching이라고 번역해서 유도(儒道)를 공자의 가르침(the teachings of confucius)이라고도 번역한다) 인 유도(儒道), 선도(仙道), 불도(佛道)같은 종교(이종교란 서양말 religion의 번역일 뿐)적 도(道)가 있다.

여기서 일단 도에 대한 정의를 얻기 위한 개념을 일단 모아 보면
도란

1. 우주 전체의 생성과 운행 그리고 발전의 길(과정(過程)과 법칙
2. 인간의 생성, 발전원칙과 또 생활하는 길(과정과 법칙)
3.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다른 생물 사이가 어울어 사는 길(국법과 법칙)등

말하자면 우주의 오천만사(於千萬事)가 도 아님이 없으니 우리의 일거수(一舉手) 일투족(一投足)이 모두 도로써 이루어지는 동작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도의 본질, 그 바로 도란 무엇인가를 다시 소급해서 고구해 보려한다.

역경(易經) 곧 주역의 계사(繫辭)에 도를 다음과 같이 설(說)하고 있다.

하나의 음(陰)과 하나의 양(陽) 이것을 도(道)라 이른다.(一陰一陽之謂道)⁵⁾

이것이 정산(鼎山)이 음양경(陰陽經)⁶⁾에서 설한 도(道)의 뜻과도 일치되는 것을 볼 수 있으니 그는 이것을 태극의 기동(機動)이라고 표현해 사용했었다.

음과 양이 서로 합하고 신과 사람이 서로 통한 연후에 천도(天道)가 이루고 지도(地道)가 이루어지느니라 (陰陽相合 神人相通 然後 天道成 而 地道成)⁷⁾

천도(天道)와 지도(地道)가 본래 도(道) 그 자체니 주역계사의 풀이에 더 해설을 보태어 이렇게 극명하게 하였다. 다시말하면 도를 나눠서 천도(天道)

5) 주역계사 上傳 제5장

6) 전경 교운 2장 42절

7) 전경 교운 2장 42절

니 지도(地道)니 인도(人道)니 유도(儒道)니 선도(仙道)니 불도(佛道)니 해도 이것은 하나의 음과 양이 음은 음하고 양은 양하면서도 합덕(合德)으로 상합(相合)하면 도(道)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진다고 보다 그것이 바로 도(道)라고 가르친 것이다.

2. 타종교(他宗教)사상에 나타난 도(道)

위에서 역경에서 도를 정의 내린 것을 보았지만 유가서(儒家書) 중용(中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하늘이 명하는 것을 성(性)이라 하고 성(性)에 따르는 것을 도(道)라 하고 도(道)를 닦는 것을 교(教)라고 한다. 도라는 것은 잠시도 떠날 수 없으니 떠날 수 있는 것은 도가 아니다.(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 道也者不可 須臾離也 可離非道也)⁸⁾

이 중용의 성도교장(性道教章)이란 글구를 읽고 잘못 생각하면 도란 것이 먼저 앞서도 성이나 교가 따라야 할 것이 아닌가 하고 반의(反意)를 가지기 쉽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면 천명(天命)에서 나온 천성(天性)에 따르는 것이 도(道)라고 해서 처음 나오는 성(性)은 도를 이루는 준비과정과 같이 된다는 것과 뒤에 나오는 교는 도를 더 완전하게 하는 지속적 수습과정과 같은 것을 느낄 것이다.

이 중용 제1장에 나오는 도에 대한 정의가 가위 유교적 도의 성격을 표현한 대표적 교훈이 된다고 볼 것이니 주역계사의 음양설보다는 인간에게 더 현실적으로 접근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도교(道教) -나아가서 신선방술(神仙方術)의 선도(仙道)로도 발전하였지만- 의 경우에는 도(道)의 교라는 명칭에 비해 그렇게 본질의 천학적인 고구는 발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노자(老子)의 도경(道經)에 나타난 도의 개념은 유도의 실천윤리적이고 교훈적인 것에 비해 고차원적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8) 中庸 제1장

·도라고 말할 수 있는 도는 불변하는(진실한) 도는 아니다.(道可道 非常·道)…9)

이렇게 고답적으로 인간 언어문자의 부질없는 논의를 질책(叱責)하는 말로써 도경(道經)이 시작되는 것부터가 도교사상의 특색이 될 것이다. 상무(常無)와 상유(常有)가 함께 도에서 나온 이명(異名)일 뿐이라고 하여 이것을 일러 현(玄), 그 현에서 또 현으로 작용하니 만물의 묘 [衆妙] 가 출입하는 문(門)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여기서 이 도교의 도에 대한 관(觀)은 마치 불교가 진공(眞空)과 묘유(妙有)가 불이(不二)하여 공즉시색(空卽是色) 색즉시공(色卽是空)¹⁰⁾의 문(門)을 내세우는 것과 근사한 원리를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불가(佛家)에서 말하는 공(空) 그 자체가 도(道)는 아닌 것이 곧이 도와 같은 것을 찾아 내자고 하면 자연법이(自然法爾)¹¹⁾라고도 할 것이다.

다음 다시 노자에게서 도에 대한 말을 들어본다.

·有物混成 先天地生 寂兮寥兮 獨立而不改 周行而不殆 可以爲天下母 吾不知其名 字之曰道 強爲之名曰大…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물질이 혼돈으로 이루어지니 천지보다 먼저 고치지도 않고 두루 다녀도 위태하지 않아 천하의 어머니라 할만한 것이다. 내가 그 이름을 몰라 도(道)라고 자(字)하고 강작히 이름을 대(大)라고 한다.…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道)를 본받으며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¹²⁾

이 노자 도덕경 제25장에서 보는 그대로 가히 천하의 어머니가 되는 도를 기껏 자(字)로서 도, 그 명(名)을 대(大)라고 붙인 것이다. 그리고 천·지·인(天地人) 3극이 도를 법으로 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 결론은 자연(自然)¹³⁾ 그것이 도의 근본이라고 규정짓는다.

자연(自然), 바로 그것이 도(道)를 낳게 한 어머니며 도는 그 자연을 본받아 그법도대로 이루어진, 다시 말하면 도가 곧 자연이라고 말할수밖에 없다.

9) 노자 도덕경 제1장

10) 대장경 반야경, 반야바라밀다심경

11) 자연법이 : 진여(眞如), 법성(法性)등과도 같은 뜻의 말. 법이자연이라고도 한다.

12) 노자 도덕경 제25장

13) 자연 :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자연과학의 자연이라는 뜻과는 다르게, 함이 없이 절로 이루어지는 [無爲自然, 無爲而化] 것을 말한다.

이 자연(自然)이란 말은 불교에서도 유·도교가 말하는 도(道)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그 실례를 들어본다.

이 자연과 같은 뜻의 문구로 자이(自爾), 법이(法爾), 자연법이(自然法爾), 법이자연(法爾自然)등의 말들이 있다. 또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말들로는 진여(眞如), 여여(如如), 법성(法性), 진리(眞理)등이 그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불교는 도교와 용어(用語)조차 비슷하고 같은 것이 많아서 일반에게 혼란을 일으키기 쉽지는 그 교리판석(判釋)이 각자가 상이하여도 근원에 올라가면 That is it 곧 즉일(卽一)이란 해답을 얻는다.

가령 맹자에 나오는 유위(有爲)¹⁴⁾란 말이 있어서 글자 그대로 '하는 일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으로 생긴 일'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일이란 말과도 같이 풀이하는 것 같은 차이가 있다.

또 그 반대되는 무위(無爲)란 말도 노자는 무위이화(無爲而化)¹⁵⁾라고 한 것이 오늘에 환전(喧傳)되고 있지만 중용(中庸)에는 무위이성(無爲而成)¹⁶⁾이라고 사용한 것이 있다. 이것이 불교에서는 해석이 달라져서 무위는 유위의 반대로 모든 인연에 의한 조작(造作), 곧 모든 현상을 초월한 진여(眞如)의 경지를 말한다.

그와 같이 자연이란 동양의 종교사상을 이룬 도의 모체인 것을 알 수 있지만 이것이 중동과 유럽에서도 또한 같은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장황한 감이 있어도 이에 대한 논의를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자연이라고 하면 우리는 우주의 대자연이라고서 모든 만물을 형이상학적 정신면이 아닌 형이하학적인 현상을 대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며 철학적인 면으로는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¹⁷⁾의 이론대로 경험의 대상, 현상의 대상전체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동양적 종교사상으로 노자나, 석가, 또 유교의 무위자연(無爲自然), 자연법이(自然法爾), 무위이성(無爲而成)등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을 희랍에서 찾으면 Physis이라는 나오다, 제조되다하는 말이 그 원어가

14) 맹자 公孫丑 下에 있는 말

15) 노자 德經 57장 淳風 '我無爲而民自化'

16) 중용 제26장 如此者不見而章 不動而變無爲而成

17) 칸트 : 1724~1804, 독일의 철학자

되며 라틴어로는 NATVRA 곧 낳다(産), 생기다하는 말에서 유래한다.

이제 여기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주신(主神)인 여호와(Jeovah)나 기독교에 와서 병용되는 엘로힘(Elohiue)의 호칭이 쉽게 풀려지는 것이다.

그런데 자연에서 생겨나는 도의 경우 비록 동양의 도란 말과는 좀 개념이 다른 면도 있지만 모든 종교는 그 근원적 사상에는 일치한 것이 있다. 먼저 기독교의 경우를 살펴본다.

기독교 성서 가운데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사를 배경한 것이기에 여호와로 호칭하는 유일신이 선민(選民)으로 간주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의 편애(偏愛)로 차 있어서 세계인의 종교다운 데가 없는 기록뿐이다.

기독교의 출현이후 그를 중심한 문도(門徒)들이 그의 사후에 교단을 세우고 경전을 만들고 교의를 가다듬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성서가 아닌 신약에서 찾아본다. 거기에도 핵심이 되는 것은 기독교의 행장 속에서 나오는 그의 설교에 의거하는 것이니 4개의 복음서(福音書)라고 한 마테오·마르코·루카·요한 가운데서인 바 공관복음(共觀福音)인 전3자는 차치하고 가장 교의적인 것을 많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인용해서 몇 군데 찾아본다.

태초에 말씀(혹은 도(道)가 있어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이 곧 하느님이니라. 이 말씀은 태초에 하느님과 함께 있었느니라. 만물은 이로 인해 이루어졌으니 하나라도 이로 인하지 않은 것은 없었느니라.¹⁸⁾

성서 다른 곳에 기독교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한 말이 있어도 그것은 자기가 가르친 교법으로서 생명의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고 도(道) 자체에 대한 언설은 위에 소개한 요한복음 첫머리의 말이 유일한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을 처음 번역할 때 말씀으로 했는데(혹은 도(道)로 번역해도 된다고 했다) 이 원어(原語)가 로고스(Logos)인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이 로고스를 말로 번역하는데 그밖에도 의미, 이성으로도 쓰인다. 더구나 헬레니즘(Helenism)시대이후 스토아(Stor)학파에 의해 ‘세계를 합목적(合目的)으로 지배하는 신적개념(神的概念)으로 간주하게 되었으니 그래서 로고스는

18) 요한복음 제1장 1절~3절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했다는 여호와 신화의 주인공 야웨(YAH-WE)라고도 불리우는 유일신과 함께 하고 또 동일체(同一體)라는 관념까지 지니게 된 것이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야웨나 여호와, 그리고 기독교에서 호칭하는 엘로힘(Elohim)이란 모두 번역하면 ‘자연히 존재한 자’ 곧 자연 그 자체가 신이므로 그 신의 로고스는 동양의 도(道)와 근사한 것이 되고 그 모체인 신인 야웨나 엘로힘은 자연 그 자체의 인격화, 의인화(擬人化)이외에 다른 무엇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우리 나라에서 자생(自生)한 민족종교인 천도교(天道敎)에서 도에 대한 사상을 더듬어 보기로 한다. 그런데 천도교는 교명을 ‘천도(天道)’라고 한만큼 천도(天道)에 중점을 두는데 또 이 천도를 무극대도(無極大道)라고도 표현하고 있다.

天道之常然 一動一靜 一盛一敗 付之於天命 是敬天命 而順天理者也(천도의 뒹뒹함이 한번 움직이고 한번 고요하며 한번 성하고 한번 패하는 것인데 천명에 붙이니 이 천명을 공경하여 천리(天理)에 순종하는 것이다)¹⁹⁾

夫天道者 如無形而有迹(대저 천도라는 것은 형상은 없는 것 같으나 자취가 있다)²⁰⁾

元亨利貞 天道之常(원·형·이·정은 천도가 불변함이라)²¹⁾

만고없는 무극대도 여몽여각 득도로다²²⁾

귀미산수 좋은 승지 무극대도 닦아내어²³⁾

만고없는 무극대도 여몽여각 받아내어²⁴⁾

도란 말을 독립해서 설한 것은 잘 보이지 않고 천도란 말이 줄곧 나오는데 그 천도에 대한 원리의 해설 또한 너무 개념적이다. 종합해보면 천도란 형용은 없되 자취는 있어서 우주의 동정, 성패가 있으니 그것을 천명에 붙

19) 東京大典 布德文에서

20) 前掲書 論學文에서

21) 前掲書 수덕문에서

22) 용담가사 중 용담가에서

23) 용담가사중 도수사에서

24) 앞의 가사중 도수사에서

였을 그것이 천리(天理)가 되어 우리가 그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고 그 천도가 상도(常道)로서 나타나는 것이 원·형 : 이·정이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한문으로 된 포덕문, 논학문에는 천도(天道)란 말을 사용했는데 국문으로 된 용담유사 안에 있는 각종 가사에는 천도란 말은 일체 없고 무극대도란 말이 가사마다에 몇 번씩 사용되어 있다. 수운이 의식적으로 했다면 그 까닭을 알 수는 없지만 무극대도는 대순진리회의 전신으로 정산이 처음 태인서 창도했을 때의 종교단체 명이 무극대도였기 때문에 수운도 무극·태극을 도의 원시(元始)로 보았던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3. 대순사상의 도관(道觀)

그러면 이제 대순사상에서는 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관(觀)을 살펴보기로 한다.

구천상제와 옥황상제로 위호를 받는 증산도조와 정산도주 두분을 교단의 조직상 지위는 도조는 선도주(宣道主)가 되고 도주는 창도주(創道主)로 하는 것이 여기에도 표현되는 듯하다. 그것은 증산은 도가 있으니 도를 닦으면 복록을 누린다는 원칙을 선도(宣道)한 반면 정산은 도는 이런 것이다, 도를 닦는 법방(방법)은 이렇게 해야한다고 하여 구체적으로 또 방법론적으로 교설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대순사상은 증산의 교법의 토대 위에 구체적 교단의 형식 위에 창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두분의 설을 한데 묶어서 이성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증정학(甑鼎學)의 증정사상일 수밖에 없고 감성적으로 섭수, 신앙하는 것은 증정교라고도 부를 수밖에 없다는 이론이 더욱 타당한 것 같다.

전경에 나타난 증산의 도(道)에 대한 교설을 찾아보기로 한다.

그러므로 내가...상생(相生)의 도(道)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²⁵⁾

25) 전경 공사 1장 3절

제생의세(濟生醫世)는 성인의 도요, 제민혁세(濟民革世)는 웅패(雄霸)의 술(術)이라²⁶⁾
 曰有道 道有德²⁷⁾

위에도 말했듯 증산은 도가 어떤 것이며 도를 닦아야 한다는 교훈은 많지만 도 자체의 해설, 판석(判釋)은 눈에 쉽게 띄지 않는다.

위의 예문 중에서 거듭거듭 상생(相生)의 도 제세(濟世)의 도를 말한 것뿐인데 현무경에서 ‘도가 있고 도에 덕이 있다는 한마디가 도의 존재와 그에 따른 도덕의 구성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본다.

정산의 행장은 전경 가운데 교운 제2장의 한 장뿐이지만 도에 대한 언설 그리고 그 도의 본질에 대한 해설이 나타나 있어서 후인에게 도의 진면목을 가르치고 있다.

이제 정산의 교법중에서 도에 관한 것을 발기(拔記)해보면 다음과 같다.

元亨利貞天地之道 仁義禮智人神之道(원·형·이·정은 하늘과 땅의 도요, 인·의·예·지는 사람과 신명의 도니라)²⁸⁾

乾定坤順 乾陽坤陰…天地之事 皆是陰陽中 有成萬物之理 皆是陰陽中(건(乾)은 안정해 있고 곤(坤)은 순종하고 건은 양이고 곤은 음이니…천지의 일이 모두 이 음양 가운데 있으며 만물이 형성되는 도리가 모두 이 음양 가운데 있다)²⁹⁾

夫道也者 天所命而人以行者也 天有无極大道 以无極之道 化生人矣…蓋道卽理也 理卽无極也 无極卽天也(대저 도라는 것은 하늘이 명한 바이며 이것을 사람이 행해야 하는 것이다. 하늘의 무극 대도가 있어 그 무극의 도로써 인간을 화육(化育) 양생(養生)하는 것이다…말하건대 도는 곧 이(理)며 이(理)는 곧 무극이며 무극이 곧 하늘이다.)³⁰⁾

여기에 도주 정산이 도에 대해 설한 이론을 정리해서 도의 원리를 추출해 내는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대개의 교주, 도주들의 교설에서 어떤 원리의 이론보다 주관적인 자교(自敎)의 교의를 주명제로 하고 이론적으로 필

26) 전경 교운 1장 16절

27) 전경 교운 1장 66절(현무경)

28) 전경 교운 2장 41절 運合呪

29) 전경 교운 2장 41절 陰陽經

30) 도주 정산의 무극대도 창도시의 趣旨書에서

요한 학적체계가 결여하게 되는 것이 특징인데 이 정산의 교설 가운데는 비교적 도 그 자체의 진수가 극명하게 표출되어 있는 것이 커다란 장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몇 개의 예문(例文) 가운데 나타난 정산의 도에 대한 개념을 찾아보는 것, 그것이 증정사상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대순사상 더구나 도통(道通)사상을 고조하는 그 도(道)의 본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운합주(運合呪)에서 설한 도의 본질은 '원·형·이·정은 하늘·땅의 도(道), 인·의·예·지는 사람과 신의 도라고 규정하였다.

4덕(四德)이라고 불리우는 원형이정을 천지의도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첫째 괘(卦)인 건(乾) 괘의 괘사(卦辭)에 나오는 말이다.

상경(上經) 건위천(乾爲天)에서 그 괘사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乾下乾上 乾爲天 乾 元亨利貞(건은 원원(元元)하고 형통하다. 곧아서 이(利)롭다)³¹⁾

이 본문의 해석은 중국, 한국, 일본에서 해석하는 이에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되는데 그 가운데 재미있는 것은 4계절과 대비한 것이니 元은 만물의 시원(始元)이기 때문에 봄(春)이요, 亨은 만물의 성장으로서 여름(夏)이 되고 利는 만물이 성수(成遂)한 가을, 貞은 만물의 완용을 수납한 겨울이라고도 해석한다. 또한 元은 봄인 동시에 仁이 되고 亨은 여름에 속하면서 禮가 되고 利는 가을로서 義가 되고 貞은 겨울로서 智가 되므로 따지면 원형이정의 4덕(四德)이 곧 4계(四季)와 통하고 4계는 4단(四端) 곧 인의예지와 통하는 것이다.(서울 성곽 동쪽에 興仁門, 남쪽에 崇禮門을 세운 것도 같은 이치에 속한다.

그래서 천지의 도가 원형이정이고 인신의 도가 인의예지란 것은 다 같은 도의 양상을 문자로 표현하니 4덕도 되고 4단도 되는 것뿐이다. 이 한마디의 문장으로도 천도라고 해도 좋고 인도라고 해도 또 무극대도라고 해도 좋은 그 당처에 오의(奧義)가 깃들여 있다고도 할 것이다.

다음 음양경(陰陽經)의 첫머리에 있는 건(乾) 곧 하늘은 정(定)해 있고 땅

31) 역경 上권 건괘(乾爲天)

인 곤(坤)은 순하다는 것은 무극, 태극, 음양의 법칙이며 또 자연현상이 보여주는 그대로다. 천지의 모든 일이 다 음양 가운데 있고 만물이 생성하는 이치가 다 음양 가운데 있다는 전제하에 극명히 설한 바 그것이 바로 무극의 도리인 것이다.

이것은 그 다음 예문에 든 무극대도의 참도 취지서에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여기에서 도라고 하는 것은 천명 그대로인데 인간이 그것을 이행해야 하는 것을 고조했다. 그리고는 하늘에 무극대도가 있으니까 그 무극의 대도로서 인간을 화생(化生)한다고 가르치며 도(道)와 리(理)가 바로 무극인 동시에 하늘이라고 교시(敎示)한 것이다.

이것은 다른 어떤 도학관계의 서적이거나 그 서적 문헌의 말로써 설명하는 것보다 더 밀도(密度)있는 대순사상의 도관(道觀)일 것이니. 이제 이것을 간추려 요약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인 바 종지의 넷째번 도통진경의 도통한다는 그 주체되는 도가 무엇인지를 확고하게 세워놓고 도통을 대기하는 공부에 정진해야 할 것이 도리라 할 것이다. 이 전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도(道)는 원·형·이·정(元亨利貞)이니 바꾸어 말하면 인·의·예·지(仁義禮智)가 그 체(體)가 된다.

천지의 일과 만물의 이(理)가 음양양의 속에 있다. 이는 상(相)이 된다. 도와 이(理)는 일체니 이는 곧 무극(태극의 음양양의)이니 이 무극의 대도로 인간을 화생(化生)하는 것이 도의 용(用)이다.」

Ⅱ. 道通(도통)에 대한 考究(고구)

1. 도통의 개념

위에서 도에 대한 논고가 좀 장황한 것 같았지만 도통의 진경을 목표로 하는 신앙생활의 주체가 도, 그 자체가 되기 때문인 것은 재삼 말한바와 같다.

그러면 이제 도통이란 무엇을 일러 말하는가 그 개념을 찾아 거기서 정의를 얻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과제일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먼저 일반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 종교마다 사용하는 속어는 다르지만 종교의 중요한 결과론적 목표가 되는 도통과 그 유사개념의 어휘들을 찾아 보는 것이다.

도통(道通) : 도가 통하다. 도가 통한 인사를 도사(道士)라 한다.

통령(通靈) : 신령과 통하다.

대각(大覺) : 또는 정각(正覺), 대오(大悟), 크게 바르게 깨닫다.

강신(降神) : 신이 몸에 내린다.

접신(接神) : 신명에게 접하다. 신들리다. 그밖에 차원을 좀 달리하지마는 개안(開眼), 천리안(千里眼) 이보(耳報), 빙령(憑靈), 신장(神將) 부림, 축지(縮地), 차력(借力)등 일반 현실적 상식이나 자연과학적 시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적 현상의 사상이 과다(頗多)하지만 이것들이 대개는 증정사상으로 보아서 허령도수(虛靈度數)에 속하는 저차원의 현상이므로 대도(大道)의 일만을 대상으로 해서 어휘별(語彙別)로 고구해보는 것이다.

일단 이 말의 대표 격으로 총괄적인 위치에 있는 도통을 뒤로하고 다른 말들부터 생각해 본다.

<통령(通靈)>

사전적인 해석은 정신이 신령과 마주 통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다. 문법적으로는 영(靈)이 목적어(目的語)가 되어 영을 통한다 영과 통한다는 뜻이 된다. 아무튼 이때의 통한다는 것은 자동사(自動詞)가 아닌 타동사(他動詞)가 목적어를 통해서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영이 내게로 오는 것은 2차적 행동이고 내가 주체가 되어 신령을 구하여 얻어 통한다는 것이라서 자동사인 도통의 통과는 의취(意趣)를 달리 한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내려온 도통을 받는 것이 수동(受動)의 태세라면 통령은 내 공부와 지혜 또는 영력(靈力) 영념(靈念)의 노력 결과로 얻는 자동적 태

세의 것이라 할 수 있다.

<대각(大覺) 또는 대오(大悟)>

불교에서 즐겨 쓰는 용어인데 수도, 수행의 결과로 세상이치를 크게 깨달은 것을 말한다. 그 깨달는 것은 선나(禪那=禪)를 닦아서, 또는 가르침(敎)을 통해서든, 그 사람의 근기(根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대각, 대오, 정각, 견성, 성불, 성도등이 다 같은 개념으로 주체는 도를 닦는 인간이어서 내가 깨달았다, 내가 견성했다. 내가 성불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성향(性向)의 것이다.

그러나 위로부터 천명으로 내려오는 도가 내 마음에 이르러 일기관통(一氣貫通)으로 이루어지는 도통을 구하여 지기금지 원위대강(至氣今至 願爲大降)을 기념(祈念)하는 대순사상에서 이러한 불교적인 자력신앙(自力信仰)의 대각과는 다르게 상제가 내려주시는 도가 내몸에서 통하게 되는 것이 본질적으로 상이한 것이다.

<접신(接神), 강신(降神)>

접신이란 글자 그대로 신명에 접했다는 뜻이 되고 강신이 신이 내렸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 말은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것이니 ‘신내림’ ‘신들림’이라는 순국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신이 몸에 들리었다는 말이나 신이 몸에 내렸다는 개념이 거의 같기 때문이다.

과거부터 내려온 무격(巫覡)들의 대다수가 갑자기 하룻밤에 접신이 되어 자기에게 접한 신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신의 음성을 듣기도 하며 예언을 하고 외국어의 방언을 하고 남의 운세를 판단하고 질병을 치료하든지 땅속의 물길을 본다는 등 일반인이 하지 못하는 일, 그리고 접신이 되기 전에는 그런 능력이 없던 일들을 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어떤 이는(현대의학의 경우) 하나의 정신병적 병증(病症)으로 간주하고 어떤 이는 (기(氣) 연구자의 경우) 신기(神氣)의 작용으로 오는 환시(幻視) 환청(幻聽) 현상으로 보아 넘기는 것이 자연과학적 관점의 범주를 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일자무식의 촌부(村婦)출신이 일본어나 영어를 유창하게 쏟아내는 일같은 것을 병리학이나 기학(氣學)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성격의 것

인지 이런 것은 영구히 불가지론(不可知論)적 과제로 넘어갈 것뿐이다.

다만 여기서 할 말은 대순사상에서 볼 땐 이런 것은 잡신과 허령(虛靈)의 작용일 뿐 종지에서 지향하는 도통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다를 뿐만 아니고 어떤 허령도수는 금기(禁忌)해야 할 일이다.

한국에는 중국과도 다른 도술(道術)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대표가 되는 것이 주금술(呪金術)이며 그 학습서는 죽각방(竹角方)이라는 분량이 많지 않은 소책자였다. 산중에서 그 책에 쓰인대로 해서 3·7(곧 21) 일을 수련공부 하면 신명 그 가운데도 신장(神將)들과 접하게 되어 그 신장에게 심부름을 시켜 음식을 사오게도 하고 환자를 치유하게도 하고 순식간에 원거리를 갔다 오기도 하는등 온갖 방술이 가능한 것이었는데 현대의 과학문명에 가리워 지금은 흔적도 없고 무슨 기(氣)가 어떻니 하는 것들이 흥행하고 있는 것도 격세의 감이 없지않다.

그밖에 신명, 신령계에 눈이 띄어 그들의 양상을 자유로 볼 수 있으며 천리안(千里眼)의 눈으로 10리밖에 오는 사람을 미리 보고 있기도 하고 도망해서 숨은 사람을 찾아내기도 하며 신계의 인사들과 사귀어 거기서 책을 얻어 읽고 함께 수작하는 일, 땅 속의 물길과 광석을 환하게 보기도 하고 남의 속을 들여다보아 질병의 상황을 알아내는 일등 부사의(不思議) 불가측(不可測)의 일들이 허다했다.

이보법(耳報法)에 통령되어 신명계의 말소리를 들을 수 있고 새소리를 듣고 말뜻을 아는 일, 한걸음에 10리씩을 가는 축지법(縮地法)이며 100근의 무게있는 물건을 한손으로 들어올리는 등 지금 세상에 말을 하면 모두가 정신병적으로 기(氣)가 이상 발달했다느니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허다한 것이 과거 우리들 조상이 하던 일들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건전한 도(道)의 사상과 실천적인 측면에서 보면 모두 진법(眞法) 정법(正法)이 아닌 가법(假法) 사법(邪法)의 허령도수일 뿐이다.

여기에 기독교의 경우 성신(聖神(靈))이 강림(降臨)한다는 곧 강신(降神)의 기록이 몇군데 나오는데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예수가 세례를 할 때 비둘기 같은 성신이 예수의 머리 위에 내렸다³²⁾는 기록이 성서에 나와 있

다.

또 예수가 죽은 다음 5순절(五旬節)이 되어 모든 제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거센 바람소리가 하늘로서 들려오고 헛바닥 같은 불꽃이 갈라져서 한 사람 한사람의 위에 머물었는데 일동은 성신(령)을 받고 그 신이 하는대로 온갖 외국말로 말을 했다³²⁾고 하여 있다.

이 성신은 후에 하느님과 예수 곧 성부(聖父), 성자(聖子)의 양위1체(兩位一體)설에 보태어 성부·자·신(영)의 3위1체설로 성립시켰다. 말하자면 처음에는 요즈음 한국서 유행하는 하나의 기(氣)와 같이 생각하던 성신을 인격화하여 3위설로 정립(定立)해서 성공한 것이다.

2. 대순사상의 도통관(道通觀)

그러면 대순사상에서의 도통관은 어떤 것인가. 그 도통에 대한 바른 길을 위하여 위에서 각종교 또는 심령학의 도술적인 유사(類似)한 사상(事象)들까지 소개하고 또 고구해 보았다.

앞에서 대순사상의 종지가 가르치는 도의 본질을 논의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도통의 개념내지 관(觀)을 파악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수도인의 최고 무상(無上)의 목표가 이것인 만큼 이에 대한 심도있는 고구와 그 수행의 법방과 그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당연지사(當然之上 當然事)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먼저 전경에 나타나 있는 도통에 관한 성훈(聖訓)을 추려 보기로 한다.

공우(公又)가 어느날 상제께...도통을 베풀어 주기를 청하였다. 상제께서...꾸짖고 가라사대...이제 만일 한사람에게 도통을 베풀면 모든 선령 신들이...편벽 됨을 힐난하리라. 그러므로 나는 사정을 볼 수 없도다. 도통은 이후에 각자 닦은 바에 따라 열리리라.³⁴⁾

나는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밝혀 주리니 상재(上

32) 신약성서 마태오복음 3장 16절

33) 신약성서 사도행전 2:1~4

34) 전경 교운 1장 33절

才)는 7일 이오, 중재는 14일 이오, 하재는 26일이면 각기 성도하리니...35)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려니
 와 도통될 때에는 유·불·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를 통하게 하느니라. ...어찌 내가 홀로 도통을 행하리
 오.36)

류찬명은 도통이 건·감·간·진·손·이·곤·태(乾坎艮震巽离坤兌)에
 있다는 것을 상제계로부터 받았다.37)

위의 예문은 구천상제인 증산의 행록, 교법 가운데 있는 도통에 관한 말씀
 중 중요한 몇구절을 뽑은 것이다. 그러나 옥황상제 정산의 법설(法說)은 별
 로 눈에 띄지 않는데 그래도 그가 종지의 마지막 넷째 종결부에 도통진경이
 라는 것은 대순의 항구(恒久)한 교의로 못박은 것만 봐도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도통을 위한 수도의 법방을 마련하여
 교단이 그의 가르침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전경에 수록이 되지 않
 았을 뿐 교의상 지닌 비중은 크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아무튼 증산이 말씀하신 위의 성구(聖句)들을 중심으로 대순사상의 도통
 관을 생각해 본다.

먼저 증산이 재세 당시의 종도(從徒) 박공우(朴公友)가 도토을 베풀어 달
 라고 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명제를 시사(示唆)하고 있다.

그것은 선생으로 모신 증산이 도통을 내려줄 수 있다고 믿는 그의 신심은
 바로 증산을 상제로 받들어 하늘의 도가 내려오게 할 수 있는 권능의 주재
 자로 믿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러나 증산은 그것을 도로 책망해서 꾸짖는다. 그와 가까운 사이 곧 현
 실적인 문도(門徒)라고 해서 편벽 되게 도통을 베풀 수가 없으니 그렇게 사
 정(私情)으로 하는 것은 어떤 교수가 그 교수에게 시종을 잘 든다고서 성적
 이 우수한 제자를 제쳐두고 최고의 포상(褒賞)을 하는 일과 같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도를 닦다가 죽은 많은 선령신등의 힐난과 원망이 있을 것이
 라는 신명 계의 일까지 곁들여 말씀하신 것이니 그것이 공명정대한 천도(天
 道) 바로 하늘의 길인 것이다.

35) 전경 교운 1장 34절

36) 전경 교운 1장 41절

37) 전경 교운 1장 47절

도통은 이후로 천천히 기다리되 도뉘은 바에 따라 열린다고 한 것이니 아무리 하늘이 내리는 것이라고 해도 수도자의 수도로서 얻는 것, 곧 타력에 의한 것이 도통이라고 하여도 그 도통을 받을 수 있는 소지(素地)는 자력에 의한 것임을 알수 있다.

다음 이 도통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해서 뉘은 바에 따라 도통으로 밝은 마음이 되는데 그 공부의 기간을 상재(上才=상근기(上根器)의 인사는 1·7일 곧 1주일만에 중재(中才)는 2·7일 곧 14일, 하재(下才)라도 3·7일 21일 만이면 도통이 된다고 설하신 것이다. 그런데 끝의 말에 성도(成道)라는 불교적 용어가 있는 것은 전경 기술자의 부주의 때문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성도(成道)란 보편적으로는 도를 이루었다는 뜻이지만 이미 타종교에서 자각(自覺)으로서 도를 이룬다고 쓰고 있으니 여기서 현혹감이 생긴다.)

아무튼 도통을 받는 것은 아무리 둔재(鈍才)라도 3·7일이면 된다는 것이니 도가 멀리에 있지않다는 것을 이것으로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날자의 수효보다 스스로의 뉘은 바 결과, 결실이라는 것이 그 핵심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위일해서 도통의 방법(법방)만 전수받으면 된다고 하는데서 도통은 자력(自力)이 아니라 중보자(中保者)인 두목의 지도력 또는 법력(法力), 연력(練力)이 필요하고, 필요하다기보다 절대적인 위력이 있는 것을 가르치신다.

옛날 주금술(呪金術)이 퍼졌을 때 산공부를 한다고 하던 이들이 곁에 스승을 모시고서 아니면 허령에 들뜨든지 마(魔)의 침입으로 까딱하면 정신이 상을 일으켜 폐인(廢人)이 되는 일들이 허다했으니 명심할 일이다.

대두목의 이야기가 나오니 한마디 짚어 넘어갈 일이 있다. 두목이라면 두령(頭領), 수령(首領)의 뜻인데 대두목이란 그 두령의 존칭으로 쓰이는 접두사(接頭辭)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인데 마치 군대에 원수(元帥) 위에 대원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인지 일반두목의 위에 대두목이란 직위가 따로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 혼란을 일으키는데 좀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앞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대순사상의 도란 무극의 대도인 바 그 무극이

곧 태극이고 태극은 양의(兩儀) 곧 음·양인데 거기서 4상이 나오고 8괘 5행이 나오는 것임은 다시 말할 것조차 없다. 그것이 바로 원형이정의 길이 오 인의예지의 길이며 크게는 천지의 길이며 사람과 신의 길이다.

그 하늘의 길, 무극의 대도가 내마음에 내려와서 내길이 되는 그것이 바로 도통이니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깨달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내려주는, 다시말하면 상제가 내려주는 것을 내가 받는 바로 그것이다.

이것을 극명하게 한마디로 나타낸 것이 시천주(侍天主)라고 할 것이니 이것은 천도교와 함께 사용하는 것인데 이로써 이 주문이 한국의 국민적 기도문이며 한국 종교인이 기원하는 주문임을 다시 인식할 것이다.

侍天主造化定 永世不忘萬事知
至氣今至願爲大降³⁸⁾

이 주문은 천도교(天道敎)에서 비롯되어 지금 공통되게 사용하는 것인데 먼저 이 주문이 도통과 절실한 관계가 있어서 도인들의 기원을 여기에 집약한 것이라 볼 것이다.

그것은 至氣今至 願爲大降이 바로 도통을 기원하는 절실한 기도문이다.

‘지기(至氣)가 이제 이르오니 원컨대 크게 강(降)하옵소서’하는 말의 지기(至氣)가 무엇인가. 이 至의 뜻은 맹자 이루(離婁))상에 ‘規矩(규거) 方圓(방원) 至也’라고 해서 극(極)하다는 뜻으로 썼고 대학(大學)에는 지선(至善)이란 말이 있으며, 여름이 극(極)한 것을 하지(夏至), 또는 북지(北至), 겨울이 극한 것을 동지(冬至 또는 남지(南至)라고 한다.

일반 사서(辭書)에는 到也, 極也로 해석하고 極의 해석을 至也라고 해서 이자(異字) 동의어(同義語)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함께 사용하면 ‘至極’이란 글자 그대로 지극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어의와 사용례에 따르면 무극(無極)과 태극(太極)을 무지(無至) 태지(太至)라고 해도 무리(無理)한 사용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다시 지기(至氣)란 말을 극기(極氣)라고 해도 또한 무리한 일은 아니며, 아니라기보다 타당한 것으로 볼수 있으니 이 지기 곧 극기는 무극의 기,

38) 전경 교운 1장 66절 현무경

태극양의 음양의 기, 건곤 곧 하늘의 기, 땅의 기가 아닐 수 없으니 그 기가 이제 내려오는데 그 지기, 극기를 제게 내려주옵소서하는 것이 願爲大降의 뜻이 된다.

여기서 기(氣)에 대한 간단한 해설이 없을 수 없으니 지기(또는 극기라고 해도 좋은)의 그 기(氣)란 무엇인가하는 것을 생각지 않아서는 안될 것 같다.

기(氣)란 글자가 처음 될 때에는 인간의 호흡을 말하는 것이었다. 차츰 거기서 생명력과 활동력 현대적으로 에너지란 뜻을 지니게 된다. 그로써 인체 내의 세(勢)와 역(力)등 생리적 의미를 포함하게 되지만 동양의도학적 견지에서는 달라진다.

그것은 이(理)와 기(氣)를 만물의 생성원리로 하는 성리학(性理學)의 근본 사상이 되어 형이상적인 사고를 가하게 된 것이다. 성리학이 당대(當代)의 정이천(程伊川)에게서 비롯되어 주자(朱子)에 의해 대성하였다. 이(理)를 태극으로 기(氣)를 음양으로 구별은 해도 이·기의 결합으로 만물이 형성되는 것을 설명한 것이 따져보면 이기2원론(理氣二元論)이 아닌 이와 기는 같은 원리인 태극 음양의 체(體)와 용(用)이 아닐까하고 생각한다.

아무튼 이 기(氣)란 말의 활용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예를 들기만에도 번거로우니 대충 생각나는대로 적어봐도 참으로 많다.

일기(日氣), 서기(暑氣), 한기(寒氣), 난기(暖氣), 습기(濕氣), 시기(時氣), 후기(候氣), 해기(海氣) 같은 것은 계절의 기후(氣候)로서 오는 것이고 화기(花氣), 향기(香氣), 염기(鹽氣) 등은 자연 사물에게서 발생하는 것이며 독기(毒氣), 풍기(風氣), 부기(浮氣), 음기(陰氣), 양기(陽氣) 등은 외부에서 생기는 것, 심기(心氣), 혈기(血氣), 노기(怒氣), 분기(憤氣), 살기(殺氣), 원기(怨氣), 단기(短氣), 격기(激氣), 광기(狂氣), 화기(和氣), 활기(活氣)등은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밖에 도기(道氣), 정기(正氣), 호기(豪氣), 패기(霸氣), 승기(勝氣), 영기(英氣), 신기(神氣), 영기(靈氣) 같은 형이상적인, 종교적인 단어도 있으며 또 현대의 장난같은 ‘끼’란 말처럼 주기(酒氣), 취기(醉氣), 색기(色氣), 화냥기 같은 비속(卑俗)한 기의 표현도 있다.

기(氣)자가 위에 붙는 말로도 수가 많으니 인격적인 기품(氣稟) 기풍(氣風), 기상(氣尙), 기질(氣質)등 용어며 기식(氣息), 기맥(氣脈), 기골(氣骨), 기울(氣鬱), 기절(氣絶)등 인체생리와 관계된 것도 많이 있다. 이 밖에도 어른에게 편지를 써서 문안할 때도 기체후(氣體候) 또는 기후(氣候) 만강한 안부(安否)를 묻는다.

이렇게 많은 용례(用例)의 기(氣)란 것이 허다하지마는 이것이 시천주에서 기원하는 지기(至氣)에서 나오는 인간만사의 기인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기(氣)의 근원인 지기의 대강(大降)을 받드는 것이 도인도통의 이상이며 목표인 것이니 자기 수도의 힘은 수강(受降), 봉강(奉降)의 준비작업일 뿐 오직 대순사상의 도통이란 스스로의 학문이나 수양, 수도로서 자기 자신의 깨달음 [自覺] 으로서 오는 성도(成道)의 대각(大覺)이 아니라, 하늘로서 내려오는 지기, 곧 상제께서 주시는 무극의 대도, 그 지기를 받는 것이 그것이 글자 그대로 강(降)이오 대강(大降)이다.

(시천주(侍天呪)의 전절(前節) 侍天主... 는 다음 절에 논의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후절(後節)만을 해석해 보았다.

3. 道通의 修行法方

도를 이해하고 도통을 안다고 해서 도가 통해지는 것은 아니니 이것은 대순사상을 기저로 해서 도주 정산이 직접 교시한 수도공부의 법방(방법)이 소용되는 것이다.

물론 사람마다 그 타고난 소질과 기국(器局)에 따라 사고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또 신체적 여건도 다르고 종교의 인식도 다르겠지만 대순의 도인이라면 대순종지에 따른 신앙심, 그 가운데도 넷째 단계의 도통진경을 체험하는 것은 일생의 염원이오 소망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일생을 두고서의 수도 수행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닌 지기(至氣)가 대강(大降)하여 천지우주와 하나의 인간이 도로써 통해지는 그것이기 때문에 내뜻이 아닌 하늘의 뜻 양위상제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된다.

그런데 이것은 도통을 위한 수도의 방법론은 아니지만 이 기도문 전절인 시천주 조화정을 완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니 시천주를 외우면 그 주문의 뜻을 이해하지 않고서의 공부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천주(侍天主)의 주문 21자가 공부의 정신적 신념이 되는만큼 이의 약해(略解)가 필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시천주(侍天主) : 하늘님을 모시었다. 천주(天主)란 아버지를 부주(父主) 어머니를 모주(母主)라고 하듯 하늘(원음은 하늘)에게 붙이는 존칭접미사 념의 한자어가 주(主)가 된다. 시(侍)는 시자(侍者), 시봉(侍奉), 시종(侍從), 시어(侍御)등 궁중이나 공청·사찰·가정에서 이런 직책의 소임(所任)이 있었다.

그래서 이 말을 문장으로 번역하면 ‘(내가 또는 사람이) 하늘님을 모시면’ 이라고 하는 것이 된다.

조화정(造化定) : 무극·태극의 음양양의로서 이루어진 것들이 정(定=이때의 해석은 결정이 아닌 안정(安定), 보정(保定)의 뜻이 더 적절하다)해진다.

‘조화가 (또는 조화된 만물이) 안정해진다’라고 번역이 된다.

영세불망만사지(永世不忘萬事知) : (위의 시천주조화정을) 오래도록 잊지 않으면 천하만사를 (모두) 알 것이다.

이렇게 전절 다음에 ‘지기금지 원위대강’이란 후절구가 계속되어 이 기도의 주문은 끝난다.

참고로 천도교 교서(敎書)인 동경대전(東京大典)에는 ‘至氣今至…’의 뒷구절은 강령주(降靈呪), ‘侍天主’의 전절은 본주문(本呪文)이라고 해서 후절이 앞에 기재되어 있어 기원하는 뜻으로는 후구(後句)가 기도의 주문(主文)이 되고 앞구절이 서론격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 주문의 한문은 한문문법적으로 보아서 의미가 모호한 데가 없지 않다. 일제때 어떤 한학자가 한문문장으로서 말이 안된다고 한 말도 들었지만 그것은 유학자(儒學者)의 안목으로는 부도(符圖)나 주문(呪文)같은 것이 접신(接神) 영통(靈通)의 경지에서 계시(啓示)를 얻어 이루어진 신서(神書)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그렇게 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종교의 교의나 신학을 dogma라고 부르는 소이(所以)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시천주(侍天主)는 자연적인 내재율(內在律)이 숨은 하나의 영적인 시

(靈的詩歌) 곧 신가(神歌)라고 부를만하다. 이것을 시적 감흥으로 의역(意譯)해 본다.

내몸에 하느님을 모시내 [侍天主]
내가 곧 하느님 [人乃天] 일세
흐트러진 천하만물이
조화 속에 안정 화육되네,
세세 무궁토록 이를 어찌 잊으랴!
하늘땅 모두 아는 이 진리 이 길을...
아! 무극의 큰 기운이 내려 오신다.
크게 내리소서, 내리소서.
바라옵건대 더 크게 내리소서.

이렇게 신명난, 신명적 주(呪)의 노래를 논리적으로 따질 것도 없이 도인 모두는 이 주문 속에서 대강(大降)하는 지기(至氣)를 받아 시천주(侍天主)의 영력(靈力)으로 만사를 알게 되는 무한한 진리의 기쁨을 누려야 할 것이니 바로 이 시천주(侍天主)가 지극(至極)의 진리함께 영세불망으로 무극, 무궁할 것이다.

여기서 도통이 가져오는 결과가 조화의 안정으로 천하만사를 다 아는 신지(神知)를 얻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방법론적인 수도 수행의 법방, 방법을 논의하기로 한다. 이 수도 방법에 대한 것은 두가지로 나눠 생각해야 할 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공동된 수도방법도 있어서 어느 정도는 통용되지만 그 가운데도 도조·도주의 가르침 가운데 수도의 원칙론이 될 총론적인 것이 있고 다음 방법론적이며 각론적인 교단 특유의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도통을 위한 종교생활의 마음가짐은 어떤 것이라야 할까를 전경의 교훈을 통해서 상고해 보는 것이다. 일반적인 상식으로서 최면술이나 기공(氣工)을 하든지 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기위해 성언(聖言)의 구절에 의론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일일 것이다.

(1) 대두목에게서 받음

위에서 거듭거듭 말했지만 대순의 도통은 인간의 작은 머리 속에서 자물

적으로 생겨나는 일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하기는 종교신앙에서 완전한 타력의뒤에는 스스로의 노력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 완전한 자력도 없으니 아무리 자력이라고 해도 그 종교의 교의가 가르치는 교주의 교법을 통한 그 타력의 법력, 도력이 없어서는 소기의 성과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따져보면 자·타력으로 나누는 건 논리상의 문제일 뿐, 함께 작용하는 도의 뜻을 체득(體得)하는 것이 대의(大義)일 것이다.

그러나 대순사상의 도통의 버리(綱)가 되는 큰줄은 위에서 내려 오는 것이지 인간의 좁은 생각으로 창출(創出)해 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에 전경은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맡기리라.³⁹⁾

또 다른 말씀도 있어서 음양양의에서 나온 4상(四象) 8괘(八卦)에 근원이 있다는 것을 교시하고 있다.

도통이 8괘에 있으리라는 가르침을 상제로부터 받았느니라.⁴⁰⁾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맡긴다는 말 때문에 증산교계 각교단에서는 내가 대두목이거니하고 생각하는 인사들이 상당히 있다는 말을 듣는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는 신앙적 자각과 자부심으로 봐줄 수는 있어도 장려할 일은 아니며 지금 대순사상으로 보아서는 도조 증산이 다음에 올 도주 정산을 지목(指目)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해답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자(大字)를 붙이지 않은 두목이나 두령은 허다하게 있어도 좋겠지만 증산상제가 도통줄을 맡길 분은 하나 뿐이라고 하지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도통의내용은 음양 8괘에 있으리라는 것이 도인의 수도향방, 공부의요체를 지적한 것이니 그것이 상제의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이 음양 8괘에 대한 것은 앞의 절에서 도의 본질을 논하면서 언급했기로 여기서는 더 말하지 않는다.

39) 전경 교운 1장 41절

40) 전경 교운 1장 47절

(2) 믿음을 지닌 노력

어떤 종교든지 종교는 믿음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일찍이 증산이 종도 김형렬의 집에서 공사를 보면서 형렬에게 타이른 교훈이 다음과 같이 전경에 전해 오는 바 이것이 도인의 근본태도인 동시에 도통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할 교훈이 될 것이다.

너는 나를 믿고 힘을 다하라고 분부하셨다.⁴¹⁾

불교경전 화엄경에 보면 '믿음이 도(道)가 되며 원래부터 공덕의 어머니다.'⁴²⁾고 하여 있는데 믿음이 도(道)가 된다는 말은 믿음으로서 도가 통해진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종교와 철학이 구별되는 것은 종교는 믿음이 주가 되며 철학은 의심이 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종교연구가는 종교적 의심을 철학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라면 종교신앙가는 신앙 곧 그 믿음이 종교의 근본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도통을 바라는 도인들, 곧 대순의 신앙인들의 마음에 먼저 상제를 믿고 상제의 가르침을 믿고 상제의 권능을 믿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도를 이루지도 못하겠지만 근본 도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우리 동양에서는 유교사상을 통해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서구사람들보다 더한 지역인데 이것은 5륜(五倫) 가운데 하나로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朋友有信)'고 하리만큼 되어 있다. 중용(中庸)에 이런 말씀이 있다.

…信乎朋友有道 不順乎親 不信乎朋友矣(붕우(朋友)에게 믿음을 얻는데 도가 있다. 어버이에게 순종하잖으면 붕우에게 믿음을 얻지못한다.)⁴³⁾

이것은 위에서 도를 말하고 중용을 말하고 또 5륜(五倫)과 3덕(三德)을 말하며 성(誠)을 말하는 가운데 있는 한구절이지만 붕우간에 신뢰와 신용을

41) 전경 공사 1장 2절

42) 華嚴經 卷6

43) 중용 제20장

얻는 것이 도의 근거가 되는 것이며 5륜 가운데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붕우간에 믿음을 얻는 것이 한 길임을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대목이다. 아무튼 신의, 신뢰, 신용, 신실한 것이 상실된 오늘의 시대에 큰 경고가 되는 것은 물론 종교를 믿는 도인의 종교에 대한 믿음이야 말로 이 인륜적인 관계의 것보다는 더 높은 차원에 뿌리를 박은 견고한 것이 아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독교 성서에 나와 있는 바오로의 기술인 서간서에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⁴⁴⁾

여기서 열성적인 기독교인의 신앙적 신앙정의를 인식할 수있으니 믿음이란 보이지는 않아도 소원하는 바 실상(實相(像))이며 그 증거 자체라고 한 것이니 함께 수증할 수 있는 말이라 할 것이다.

또 예수의 수제자며 카톨릭교회의 정신적 초대 교왕이 되는 베드로는 '믿음에 의해 신력(神力)의 가호를 받는다'⁴⁵⁾고 교인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 대순사상에서는 이 믿음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 도주 정산이 설정한 3요체(要諦) 성·경·신(誠敬信)에서 신(信) 곧 믿음을 말하고 있는것을 살펴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일심이 정한 바로 이해(理解) 사정(邪正) 편의(偏倚)로 개역(改易)과 변천, 차착이 없으며 불일이이(不一以二)하고 불삼이삼(不三以三)하며 불피이차(不彼以此)하고 부전이후(不前以後)하여...⁴⁶⁾

대순사상의 신앙을 철학적으로 심도깊게 설하신 것이지만 이의해석과 이해가 난해한 바 이것은 다음 3요체의 논의가 계속될 때 논급(論及)되겠기로 여기서는 다만 원문의 적기(摘記)만으로 생략한다.

구천상제로서의 증산이 나를 믿고 힘을 다하라 [盡力] 고 한 것은 힘쓰지

44) 신약성서 히브리서 11:1

45) 신약성서 베드로전서 1:5

46) 宗旨, 四綱, 三要諦, 守則 등 公布文中

않는 믿음, 그것은 형체(形體)만 있고 활동이 없는 인간과 같을 것이니 많은 종교단체에서 신(信)과 행(行)을 겸한 신행(信行)이라는 말과 함께 수행(修行), 지행(知行) 또는 지신행(知信行)이란 문자들을 즐겨 쓰는 것도 그때문일 것이다.

아무튼 상제를 믿고 힘을 다하라는 말 그대로 신심(信心)과 진력(盡力) 이 두가지가 도통하는 방법에 앞선 하나의 원칙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3) 일심(一心) 곧 한마음

일심 곧 한마음이란 허트러지지않고 한군데 집중되어 있는 마음, 또는 어제나 오늘과 내일에 변함없는 한결 같은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니 그 일심은 곧 우주의 마음이요, 하늘의 마음이며 잡된 것이 섞이지 않은 청정한 마음이요 구부러지지 않고 바르고 깨끗한 [正直] 마음이며 정성을 다하는 마음 [誠心] 이며 더할 나위 없는 마음 [至心] 인간의 근본마음 [本心] 이며 한 조각 붉은 마음 [一片丹心] 이라고 하는 글자 그대로 생사고락을 떠난 순수 정열의 마음이다.

이것을 전경에서 예문을 취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일심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이 배를 타지 못하리라⁴⁷⁾

이 말씀은 증산이 화천하시기 전에 혈식춘추 도덕군자(血食春秋 道德君子)란 글을 쓰시고 남조선(南朝鮮) 뱃길에 일심을 가지지않으면 그 배를 함께 탈수 없다고 가르친 것이다.

최익현(崔益鉉)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증산이 하신 말씀으로

일심의 힘이 크니라. 같은 탄압아래서 임낙안(林樂安)은 죽고 최면암(崔勉菴)은 살았느니라. 이는 일심의 힘이니라. 일심을 가진 자는 한손가락을 튕겨도 능히 만리밖에 있는 군함을 물리치리라.⁴⁸⁾

이렇게 하였는 바 일심의 힘이 이렇게 큰 것이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한마

47) 전경 예시 1장 50절

48) 전경 교법 3장 20절

음의 힘이 큰 것, 그 한마음으로서는 안되는 일이 없음을 명확하게 가르친 말씀이 있다.

범사에 성공이 없음은 한마음을 가진 자가 없는 까닭이라. 한마음만을 가지면 안되는 일이 없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한마음 갖지 못함을 한 할 것이로다. ...진실로 마음을 간직하기가 죽기보다 어려우니라. 나를 믿고 마음을 정직하게 하는 자는 하늘도 두려워하느니라.⁴⁹⁾

한마음에 대한 것, 나아가서는 마음 그 자체를 말해서 마음지키기가 죽기보다 어렵다고 하였으니 가위 유심론(唯心論)의 극치라고 이를만하다. 도인, 비도인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이 다함께 고두(叩頭) 경청(傾聽)할 성언(聖言)이라고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순결한 마음, 호생(好生)의 덕을 말씀한 것도 있으며 그 밖에도 모든 교훈의교법이 다 대순진리의 완성인 도통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꼭 이 한마디 성구(聖句)만은 전기(轉記)해두지 않을 수 없는 교훈이 있다.

도통은 각기 닦은대로 열리라.⁵⁰⁾

(4) 도통수행의 법방

여기서 도통을 위한 대순의 수행 법방(法方=方法)을 장황하게 늘어놓을 필요가 크게 없을 것 같아서 대순진리회가 실시하는 독특한 공부의 법방이 지닌 의의나 찾아 보려한다.

그것은 이 법방에 대한 의례 절차는 교단 전래의 고유한 것인 동시에 또 다른 종교교단에서의 절차와는 독특한 것이므로 이것은 도인인 신도들이 더 잘 알고 또 수행하는 것으로 문외한(門外漢)들의 선부른 논의가 그다지 의의있는 일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서다. 그래서 상론(詳論)을 피하고 간략히 비판을 가하지않은 소개로 끝내려 하는바 또한 이것은 옥황상제로 신앙의 대상이 되는 도주 정산의 제정으로 후인이 이 법방을 자의(恣意)로 변경할 수 없는 금단(禁斷)이 있는 것이 종지의 경우와 같기 때문이기도 하다.

49) 전경 교범 2장 5~7절

50) 전경 교운 1장 33절

하기는 광의적인 수도라고 하면 일반적인 치성이나 기도, 강론, 강좌등이 있지만 공부실에서 집단적으로 대중이 함께 닦는 공부의 법방은 타종교에서는 보지 못하는 독특성이 있는 바 그협의적 의미의 공부 법방을 간단히 기록해 본다.

먼저 시학공부(侍學工夫)부터 시작한다. 시학의 侍자는 侍天主의 뜻에서 나온 것으로 곧 시천주를 배우는 공부라고 해석할 것이다.

시학반이 편성되어 책임자 부책임자와 정급(正級) 진급(進級) 회원들로서 1개반에 12명씩 남녀 도인별로 남자를 외수(外修=바깥사람 곧 남자 수도원이라는 뜻), 여자를 내수(內修=안사람들의 수도원이라는 뜻)라고 하여 따로 편성한다.

지정주문을 계속해서 외우는데 일진(日辰)의 음양을 맞추어서 양의 날에는 태을주(太乙呪)부터 음의 날에는 시천주(侍天呪)부터 하되 평일과 주일에 따라서 회수가 다르다. 공부를 마친 다음 중궁(中宮)으로 가서 봉심(奉審)행사를 행한다.

이 공부때는 목욕재계하고 의복과 용모를 청결 단정케 하며 일체의 부정(不淨)을 금한다.

이 공부가 끝난 다음 초강식(初降式)의 의식이 있고 그 후에 다시 합강반(合降班)이 확대 구성되어 또 소정의 공부를 시작하여 끝난 다음 합강식이 거행된다. 이 시학공부가 끝난 사람에게 시법(侍法)공부가 있고 그에 따른 봉강식(奉降式)이 있다.

그래서 여주 본부도장 영대(靈臺)앞에 봉강전(奉降殿)이 건립되어 있는 것도 주목의 여지가 있다.

아무튼 이 도통을 위한 공부법방은 절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또 치밀한 조직은 옛날의 제갈공명(諸葛孔明)이 쓰던 진법(陣法)과도 같다고 하며 신비감 가운데 엄숙 경근하게 집행되는 것이므로 논자(論者)가 함부로 회자(膾炙)할 수 없는 도의 최고 의식이다.

이로써 개인의 도통보다 대중구제의 집단도통을 기망(冀望)하는 정산의 크신 뜻이 깃든 일대의 노작(勞作)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기에 양위상제를 신앙대상으로 하여 위에서 내려오는 지기(至氣)를 갈구(渴求)하여 대강(大降)

을 받는 그 도통의 과정(過程)으로서는 필수 불가결의 방법이며 공부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간단한 소개로서 이 절을 마친다.

4. 도통(道通)의 결과

도통의 결과라고 하고 보니 좀 어긋나는 말인 것 같은 것은 도통 그 자체가 신앙, 수도의 총결(總結)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다시 논할 것이 없는 것 같이 생각된다.

그러나 도통을 하고 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는 것이 의문이 아닐 수 없으니 그래서 좀 억지스러워도 이런 절(節)을 마련해 본 것이다.

여기에 한마디 먼저 짚고 넘어 갈 것은 위에서 전장(前章)의모두(冒頭)에서 잠깐 말은 했지만 일반의 세속적인 관념과 대순사상이 지향하는 도통의 개념을 대비해 고구하므로써 그 결과적 표현을 명확히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일반 통속적인 경우를 실례를 들어가면서 상고해 본다.

(1) 꿈과 환상 중에 신령들을 대하고 서로 담화를 나누며 미래에 닥쳐올 일을 예시(豫示)받는데 이것이 몽환(夢幻)중이 아닌 현실로 나타나는 일도 있어서 이런 것을 도통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다.

(2) 개안(開眼)의 현상이 일어나 지하에 흘러가는 수맥(水脈)이 환하게 보이고 몇십리 밖에서 찾아 오는 사람을 볼 수 있고 가보지 않은 지방의 풍경을 앉은 자리에서 환하게 볼 수 있고 또 몇백리 밖에 있는 사람의 행동을 앉아서 알 수 있는 천리안의 현상이 생겨진다.

(3) 몸에 도의 기(氣)와 힘(力)이 올라서 손으로 병자의 환부를 만지면 병이 낫고 강한 철사를 구부러뜨리기도 하고 고장난 시계를 가게 하고 남에게 최면을 걸어서 그 피술자(被術者)가 자기집 안방에서 일본 동경을 가보기도 하고 이탈리아나 프랑스를 가서 관광을 하고 또 망령과도 만나보도록 한다.

(4)神明(神明), 신장(神將)에게 명령하여 물건을 사오게 할 수도 있고 노역(勞役)으로 담을 쌓고 논밭에 일을 시킬 수도 있으며 난병의 환자를 고치

게 할 수도 있다.

(5) 개인의 운명이나 국가와 세계의 미래를 예언하여 그것이 나중에 예언대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심지어 그런 영력이 극도로 발달한 사람은 어떤 기명(器皿)이 언제 몇날 몇시에 깨어진다고 하여 그대로 적중하기도 하는 일도 있다.

(6) 일자 무식의 사람이 일본말을 하고 영어를 하는 일등, 그리고 유식한 한문문자를 쓰며 자신에게 접신(接神)한 선령들의 입이 되고 몸이 되어 '내가 단군이다' '나는 예수다' '나는 석가모니다'하기도 하고 전생에 내가 누구였다, 또 너는 누구였다하는 불교유회설에 입각한 언행을 하기도 한다.

※ 여기에 한담(閑談) 한마디를 피력한다. 10여년전 필자의 집에 방을 얻어 세를 든 나이 40여세의여인이 하나 있었다. 남편과 자식들은 호남 어디에 있었는데 신이 들려서 혼자 돌아 다닌다고 하며 한달에 절반 정도는 신이 이끌어 가는대로 가서 남한산 동굴에도 가있고 또 적은 암자에도 가있다가 오고했는데 남의 운명이나 질병을 봐주기도 했다.

그런데 자기에게 들린 신이 셋이라고 했다. 하나는 죽은 숙부로서 일본서 대학엘 다니다가 젊은 나이에 죽은 사람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유식한 일본말을 지꺼려대면 남들이 이상하게 듣는다고 했다.(본인은 초등학교도 안다니는 사람이었다.)

또 하나는 시아버지가 들렸는데 풍수공부가 있던 이라서 누가 묘터를 잡는다고 하면 자기가 불러 가기도 하고 하나는 친정 사돈집 노인으로 수맥(水脈)을 찾아주는 것은 그 노인을 불러서 자기가 대행(代行)한다고 했다.

그것말고도 몇해전 한국에 와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몽골의 꼬마중은 무슨 법사가 전생(轉生)되었다고 해서 전생일을 환하게 알고 또 여덟살 먹은 애 같지 않은 유식한 법문(法門)의 설법도 하고 하였다.

이런 예를 들자면 한이 없지만 이런 일의 반대되는 과학적 면에서 풀어서 모두가 미신적인 것이라는 것도 일리(一理)가 있고 또 그태도를 시인해서 신비한 정신세계의 일이라고 하는 것에도 일리가 있지만 따져보면 이솝우화(AEsop 寓話)에 나오는 방패의 양면일 뿐인 이야기다.

그러나 건전한 종교의, 건강한 수도의 도통은 이런 가시적(可視的) 기사

이행(奇事異行)을 가지고 논할 수는 없으니 이런 것은 도술(道術)의 도(道)가 아닌 술(術)에 속하는 일이고 또 양위상제 재세시에 가장 주의를 준 허령(虛靈)일 뿐이니 과거에 이런 술법의 공부를 한다고 하다가 정신이상자가 되어 폐인(廢人)으로 오신명(誤身命)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상기(想起)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과제는 진정한 종교적인, 대순사상적인 도통이란 무엇이며 또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필자 개인의 자기 주관적인 면으로 흘러서 성교(聖敎)의 취의(趣意)에 과불급(過不及)이 있지않을까 우려되는 바가 없지않다. 그래서 이것을 지·정·의(知情意)의 3면에서 고구해 보려한다.

첫째 전경을 배우고 법설, 강의를 듣고 해서도 모호하기만 하던 도의 대의(大義)가 머리 속에 절로 선명하게 떠오를 것이다. 무극이 곧 태극인 그 태극의 음양양의에서 도가 성립되고 4상(四象), 8괘(八卦), 5행(五行)이 생겨 나서 우주의 삼라만상이 생성 발전하며 그 가운데 생물의 하나인 내몸도 세상에 나와서 그것이 밥만 먹고 일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도로서 살고 도와 한몸이 되어 내 몸의 혈관 속에 내 머리의 생각속에 내 가슴의 심장고동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몸소 인식 [體認] 하게 되는 것이니 바로 이것이 도통의 지적(知的) 인식의 결과인 것이다.

둘째 양위상제를 몸소 내 몸에 모시는 시천주(侍天主)의 자각과 인식, 나아가서는 감동, 감응이라 할 것이다.

사실 종교의 신앙이나 수도의실천은 교당한 이론이나 난해한 학술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종교를 구성하고 신앙을 기폭(起爆) 유지케 하는데는 지적인 학문의 밑바탕이 없어서는 안되지만 그 학문과 이론의 바탕위에 인간의감정적인 정서가 종교의 신앙을 이루게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일이다.

더구나 하늘과 땅의 지기(至氣)를 받아 우주의도가 통해지는 신비한 사실이 학문과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그 결과 또한 그런 것이다.

여기에 대순사상이 교시하는 상제관 더구나 양위상제가 무극주, 태극주로 세상에 출현하여 천지공사로서 도수를 조정하여 5만년 선경세계를 이룩한다

는 것은 과학적인 학문으로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교리는 아니니 여기에서 지성보다 감성(感性)의 작용이 없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도통을 받은 경지나 또 받은 사람을 문자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니 이 위대하고 신비한 사상(事象)이야말로 시천주(侍天主)한 사람의 특수한 감동, 감응의 소치(所致)라고 할 것이다.

셋째 도통을 받은 사람은 일반인과 어떻게 다를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도통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한사람이 가자기 달라졌다고 말이다. 그것은 무극·태극의 음양5행 천지의도가 그 한사람이 도통하고 안하고에 다름이 없듯이 도통받은 사람도 또한 다름이 없을 것이다.

‘나는 도통했다’고 소리를외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소리 허령(虛靈)에 들뜬 광기(狂氣)일 수 있고 또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든지 하는 것도 건전하고 건강한 도통인의 태도가 아닐 것이니 그 또한 허령에 들뜬 행동, 마치 요사(妖邪)한 잡술(雜術)에 빠진 사람의태도와 다름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가령 안색이 유화하여 윤기가 나고 음성에 권위가 있고 안광(眼光)이 빛나며 행동거지에 중량감이 있고 그 언설이 도의 본뜻에 입각하여 논리있고 주체성이 있든지한 특징이 있으면 그를 객관적으로 보아서 도통한 인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도 대순사상의 수도법방이 아닌 다른 수양의 방법으로 도 얻을 수 있는 가시적(可視的)인 표현일 뿐이다.

똑 바르게 말해서 도통은 하늘과 그 당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알 수 있는 것은 도통이 아닐 것이고 도통은 남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도통이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르친 성인들의 방편(方便)일까 하는 의구심도 생길수가 있지만 지금까지의 인류의 대도사(大導師)였던 많은 성철(聖哲)의 도통(道通)과 통령(通靈), 자각(自覺), 접신(接神)등을 보아서 도통은 반드시 있는 것이니 도인들 스스로가 닦은 대로 받을 것이란 증산의 교훈을 다시금 생각할 것이다.

다만 현세에서 내가 ‘도통받았다’고 큰소리로 사언(詐言)을 치는 가도통

(假道通) 때문에 진도통(眞道通)의 면목이 가리어지고 있는 것이라 수밖에는 없다. 그러나 우리 곁에 실로 도통한 이가 있어서 함께 다방에서 담화를 나누고 함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해도 우리가 가려낼 수 없는 것 뿐일 것이다. 다만 경계할 것은 이상하게 머리를 기르고 색다른 의장과 이상한 언동을 하는 인사일수록 가짜(假者)일 수가 있다는 것만을 말해둔다.

Ⅲ. 眞境論

도통을 한다는 것이 도신앙의 극치인 귀착점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진경(眞境)이란 두 글자가 첨가되어 있는 것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 약간의 당혹감(當惑感)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정산 재세시 그 당시는 하도 많은 사람들이 도통을 받았다, 했다고 진·가(眞假)의 구별을 할 수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도통의 진경이란 말을 설정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진과 가의 구별없이 약간의 염험으로서 또 약간의 이행(異行)으로서 천지의 대도(大道)를 어지럽히는 일이 비단 그 당시뿐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는 뜻에서도 도통에 진경을 붙여서 '도통진경'이란 새로운 술어를 사용했으리라고 하는 추측도 성립된다.

그러면 여기서 도통진경이라고 한 '진경'이 지닌 의미를 먼저 추출(抽出)하여 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니 그것은 도통의 자리가 곧 진경이라고 해석도 될 수 있을 것이며 도통한 후에 진경에 이른다는 뜻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이 진경은 과연 무엇, 어떤 경지를 이르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1. 정신적 진경과 가시적(可視的) 진경

(1) 정신적 진경

이 진경을 두가지 측면에서 해석해 본다. 먼저 하나는 도통을 받아서 스스로의 도가 새로 정립이 되고 스스로의 신성(神性)이 살아나서 완전한 인격자로서의 인간이 되고 거기에 양위상제를 모시고 있다는 도의 관념이 확고하게 되어 안심입명(安心立命)의 인간적 가치관이 정립되어 정신과 육체를 초월하고 생사를 초월한 시간과 신명계와 인간계가 상통(相通)하는 공간 속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시공(時空)조차도 초월하는 신인적(神人的) 경지 속에서 생활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일러 진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하기는 도통한 진경의 경지에서 정신과 육체가 생활하는 사람을 가리켜 위에서 나열한 인간의 문자도 별 소용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그러한 심령의 세계를 표현할 현실의 언어 문자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경의 경지에서 사는 사람은 그가 곧 신계의 인물과도 같은 존재니 그가 살아있는 신 그대로의 신인(神人)이오, 인신(人神)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음양 5행 대우주의 지기(至氣)를 받은 인간은 소우주가 되어 우주와 관통하는 사람이니 그 경지가 바로 진경이다.

그러니 그의 일거수(一擧手) 일투족(一投足)은 곧 우주의 움직임이며 그가 뱉어내는 말은 바로 희랍사람들이 말한 로고스(Logos) 그대로인 것, 그의 웃음은 난풍화일(暖風和日)의 상징이오, 그의 노여움은 질풍노도(疾風怒濤) 뇌전벽력(雷電霹靂) 그대로다. 그에게도 청천명일(青天明日)의 날이 있고 운무우설(雲霧雨雪)의 날이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도의 모습이며 대자연의 운기(運氣)일 뿐이다. 식반음주(食飯飲酒)나 방뇨설분(放尿泄糞)이 일반인의 생리와 같다 하여도 이 또한 자연법(自然法)의 진실상이니 그는 진경(眞境)에 살고 있는 진심(眞心)의 진인(眞人)이기에 그렇다.

흔히들 진인(眞人)이라고 하면 도교(道敎)에서 말하는 신선을 뜻하는데, 그것은 한 종교의 용어일뿐 글자 그대로인 참사람 곧 진실한 사람의 뜻으로 설명한다.

여기서 굳이 진인(眞人)의 어의(語義)를 밝히지 않아도, 진경에는 진인이라야 안주(安住)할 수 있다는 것쯤은 누구든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타종교에서 말한 진경(眞境)과 같은 류의 경지를 소개한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있다 하지 못할 것이니 천국은 오직 네 맘에 있느니라.⁵¹⁾

當知 直心是菩薩淨土 菩薩成佛時 不謫衆生 來生其國
(마땅히 알라. 직심(곧은 마음)이 보살의 정도니 보살이 성불할 때 의심치 않는 중생이 그 나라에 태어나리라.)⁵²⁾

말로써 천국이 여기있다, 저기있다 하는 말에 흔들릴 것 없이 오직 네 안에, 네 마음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극명하게 가르친 말이다.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진경과 같은 취의(趣意)의 교훈으로 진인의 진심 그 도통한 자리 밖에 천국이 따로 없다고 가르친 기독교 교리에도 핵심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에 있는 불경 유마경에 있는 말도 유(類)가 같은 말이니, 천국이나 진경이나 정도같은 그 종교 특유의 용어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해도 좋은 것이다.

곧은 마음(直心) 곧 정직한 마음이 보살의 불국정도라는 것이다. 불교에서 서방에 극락정토가 있고 동방에 유리광정토 또는 남쪽에도 북쪽에도 있고 우리가 살고있는 사바예토(娑婆穢土)도 사람 모두가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된다고 하면 불국정토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곧은 마음(直心=眞心이라고 해도 좋다)의 그 자리, 그 마음이 곧 정도라는 것이 위의 기독교 성서의 말이나 같은 취향(趣向)의 것이다.

그 곧은 마음, 참마음 그것이 정도며 천국이란 것을 대순사상에서 보면 곧 도통한 마음 그대로가 진경이라는 것과 같은 해석을 내릴 수 있다.

대순진리회의 교의 가운데 도주 정산이 제정한 ‘목적(目的)’이 있다.

無自欺(스스로 속임이 없음) · 정신개벽

51) 신약성서 루가복음 17:21

52) 불교경전 維摩經 佛?品

地上神仙實現 · 인간개조
地上天國建設 · 세계개벽⁵³⁾

이 목적이 바로 위에서 논하고 있는 참마음의 실천으로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속이지 않을 정도의 마음이 된 것은 곧 하늘의 마음이며 주국의 마음이다. 그것이 인간의 정신 개혁인 동시에 참사람(真人)이 된 증좌다.

거기서 천지의 도를 받은 사람은 다른 신계(神界)나 선계(仙界)에 가지않고 바로 이 세상에서 지상신선으로 생활하게 되는 것이니 그것이 정신개혁인 개혁에서 인간의 개조와 재생을 이루게 되는 길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하여 마지막 목적인 지상천국이 건설되는 것이니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세계개벽, 지구개벽이다.

근래에 유치한 원시적인 발상으로 하늘이 쪼개어지고 하늘 위에서 구세주가 내려와서 휴거(休擧)에 들어간다고 하는 흑세무민의 서양식 미신이 유행하여 세상을 시끄럽게 한 일들이 허다하였다.

대기권에서 화성인이 내려온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어디서 누가 내려온다느니 어디로 올라간다느니 하는 말들이 오늘날 21세기를 맞는 한국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세계인의 앞에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란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것이 세계개벽이라고 가르친 대순진리의 교법이 얼마나 건전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인식 할 수 있는 것이다.

2. 지상천국의 건설

진경의 가시적(可視的) 청사진은 대순의 목적의 셋째인 지상천국의 건설이 그것일 수 밖에 없다. 사실 목적하는 바 이상대로 온세계 각국민이 모두 태극음양의 도리(道理)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도통의 경지에 이른다고 하면 이 지구세계는 바로 선경세계 지상천국으로 변모된다. 국가간의 전쟁은 고사하고 서로의 무기경쟁이나 자국의 경제이익만을 꾀하는 정치적, 경

제적, 문화적 이기주의나 소비니즘(chauvinism=國粹主義) 같은 것은 눈녹듯 절로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대신 자유, 평화, 인존(人尊)의 민주주의로서 국제적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게 될 것을 상상할 수 있다.

이 지상천국, 선경세계, 진경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전경의 몇 구절을 통해 생각해 본다.

후천 선경을 열어 놓으시고 신도를 풀어 조화하여 도수를 굳건히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인사를 조화하니...54)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威武)와 형벌을 쓰지않고도 조화(調化)로서 창생을 다스리리라.55)

선천의 도수를 뜯어 고치고...후천의 운로를 열어서...상생의 도로써...3계를 개조하기 위함이로다...56)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는 불을 때지 않고서도 밥을 짓고 손에 흙을 묻히지 않고서도 농사를 지을 것이며 집집마다 등대 한개씩...온 동리가 햇빛과 같이...문고리나 옷걸이도 황금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금당혜(金唐鞋)를 신으리라.57)

이상 추출한 전경의 예언적인 구절이 꼭 도통진경을 지적한 것은 아니지만 후천 선경세계의 새로운 구조와 광경을 예지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가시적 진경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선경세계를 열고 신도(神道=곧 天道)로서 인사를 조화하되 무기와 형벌이 없이 상생의 도로써 3계를 개조, 개혁하는 것이라는 원칙을 여기서 밝히 알 수 있다.

둘째, 이 가시적인 진경의 세계 그 선경의 발전하는 조화의 현상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으로부터 1세기 전에 그려 보이신 것이 세번째의 예문이니 이 구천상제의 예언이 오늘에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는데서 그의 위대성을 이해할 수 있다.

54) 전경 예시 1. 10

55) 전경 예시 1. 81

56) 전경 예시 1.6~8에서 초록

57) 전경 공사 1. 31

말하자면 장작이나 숯불이 아니고도 밥을 짓고 직접 흙을 만지지 않고 농사를 짓는 것 등불이 햇빛과 같으며 문고리 옷걸이를 금으로 만들고 금장식을 한 외국모양의 신발을 신게 된다는 바로 그대로가 나타나는 것이 선경세계 곧 지상의 천국건설이다.

전경외의 다른 증산 교단의 경서에 보면 비행기가 공중에 자유로 날아다니는 것과 가볍게 힘을 써서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것이며 육로와 해로의 교통이 자유자재인 오늘을 마치 눈앞에 보듯이 그려놓고 있다.

또 옥황상제로 봉대하는 도주 정산이 진경인 선경세계 지상천국에 대해 교시한 것을 전경에서 찾아본다.

도인에게 각도(覺道=도의 깨달음) 문을 내렸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다.

…仙佛儒大道正通 是以天命代語 先後天道理氣生 大矣 至矣 聖矣 惟我奉教後學 以光大道 以承大德 以弘大業 清華五萬年龍華仙境 一一同濟之地 千萬幸甚焉(선·불·유의 대도가 바르게 통하여 이로써 하늘의 명을 대신 말한다. 선·후천 도의 이(理)와 기가 생(生)하니 크도다, 지극하도다, 거룩하도다. 오직 우리가 교를 받들어 뒤에 배움으로 써 대도가 빛나고 써 대덕을 이어받고 써 대업을 넓혀 청화 5만년 용화선경 세계를 우리 모두가 함께 밟는 땅이 되니 천만 다행하도다.)⁵⁸⁾

여기서 선·불·유 사상의 그 대도가 바르게 통한다(大道正通)는 것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며 또 그 후에 대도를 배우고 대덕을 이어받고 대업(大業)을 퍼뜨려서 청화한 5만년의 용화미륵세계 곧 선경세계에 다함께 살자는 것이 바로 도통진경의 큰 뜻을 극명하게 나타낸 것이다.

이 각도문을 대의만 소개하고 다음 여러가지 주문 가운데 옥추통(玉樞統)이란 주에서 또 5만년 청화진경을 말씀하신 것을 들어본다.

天地人大判決 大事定位 陰陽五行 順平定位 萬物群生各各定位 天地復定 日月更明 山通水遠 清明世界 和順世界 萬里新制 建哲極于中 五廣濟化 四極大定 永定五萬年清化之世 음급급如律令
(천·지·인 3계가 크게 결정이 되어 대사가 자리를 정하도다. 음양이 자리잡고 만물군생이 각각 자리잡히니 천지가 다시 정해지고 해와 달이

·58) 전경 교운 2.33 각도문에서

다시 밝으며 산이 서로 통하고 물이 깊게 뻗쳐 청명세계 화순세계가 된다. 온갖 도리가 새로 정해지고 밝은 무·태극이 중앙토(土)에서 새로 세워져서 5방이 함께 화(化)하고 네군데 끝(極)이 크게 자리잡아 길이 5만년 청화세계가 터전을 정하리니 음 급급 여율령(빨리 법과 명령대로 하라)⁵⁹⁾

이 글은 더구나 보통 문장이 아닌 진언(眞言)이라고도 하는 주(呪)의 문장이다. 잘못 해석하면 주(呪)가 지닌 신성성(神聖性)을 모독(冒瀆)할 수도 있는 일이므로 위의 번역조차도 송구한 느낌이다. 그러나 이 어른들이 눈앞에 있는 현실세계의 비합리(非合理) 불확실한 상태의 현실에 상제다운 안목으로 당래(尙來)할 청화(淸和)세계의 5만년 선경세계 진경을 바라보시면서 설하신 것이니 도인들이 믿고 바라는 이상ियो, 소망인 것임을 말하고 이 절을 닫는다.

2. 도통(道通)과 진경(眞境)의 결합(結合)

‘도통진경’이란 네 글자가 읽는 사람에 따라서 관념의 차이를 일으킨다. 하기는 비단 이 단어뿐 아니고 종교니 신명이니 인간이니 하는 모든 관념이 인간 누구에게나 꼭 같을 수는 없다.

여출일구(如出一口)로 인민공화국만세를 외치는 북한사람이라면 알 수 없지만 인간은 생긴 모습과 체격, 체질이 사고하는 방식과 행동하는 양식이 다르게 마련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 도통진경의 종지에 대해서도

- 도통하면 진경에 이른다.
- 도통에서 진경까지
- 도통을 해야만 진경이다.
- 도통을 해야 진경을 안다.

하는 등 관념이 있을 수 있고 이밖에도 막연한 관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결정적으로 하나의 개념을 추출할 수 있으니 그것은 ‘도통이 곧 진경이다’하는 것이다. 그것은 도주 정산이 이 넷째번 종지를 도통진경

59) 전경 교운 2장 42절 玉樞統에서

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하면 도통과 진경의 두가지 관념은 영구히 결합되지 않고 분리된채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었을지 모를 일이지만 한 단어로 도통 진경의 합성어가 된 후에는 두개의 품사가 결합된 하나의 관념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하여도 지나친 판단이라고 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 한번 중언(重言)의 혐(嫌)이 있지만 성교(聖敎)의 도통이 통령, 접신이 되는지 최면술, 천리안 같은 또는 무격(巫覡)에서 보는 신비한 이행을 하는 일들이 목적이라면 모르지만 대순사상의 진경은 대인, 군자가 안심입명 하는 마음의 경지 또는 성서가 말하는 천국이라든지 불경이 말하는 정토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 진경은 도에 입각하고 도의 경지 곧 도가 우주와 통한 경지일 것이니 일단 부수되어 일어날 수 있는 신비적 사상을 인정은 한다고 해도 그런 이행(異行)을 목적화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경지에 일단 심중(心中) 진경이라고 명명해 본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천국이라는 말과도 상통(相通)한다. 이 심중진경은 종지 끝에 있는 목적의 지상천국 건설의 첫관문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하나 하나 개개인의 심중천국이 건설된 것이 집합, 결합되면 그것이 지상전체 곧 세계개벽의 전초인 정신개벽, 인간개벽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 고등 종교의 이상이란 일개인, 나 하나의 정신개벽이나 인간개벽, 심중진경이라는 개인구제에만 국한되고 또 그런 경지에 국축(蹶縮)되어서는 인류구제, 세계구제의 큰 사명을 등지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대중구제, 세계인류 구제라는 대국적인 거시안(巨視眼)을 지니지 않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거기에 세계개벽의 이상과 목적, 지상천국 건설의 정신적 대사명 아래, 그 한 분자(分子)로서의 자신의 수도와 도통, 그 도통이 심중의 개인적인 진경과 함께 지구상의 세계적인 진경건설의 큰 뜻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의 목적으로 볼 때, 도통과 진경은 결합되지 않을 수 없고 결합된다기보다 도통이 곧 진경이라는 등식(等式)이 성립되는 것이다.

아무튼 이로써 대순사상 종지의 기(起) 승(承) 전(轉) 결(結)의 결구(結句)가 되는 도통진경이야 말로 종지 가운데도 종지인 결론적 목적인 만큼 모든 도인의 신앙 수도의 지표(指標)인 것이다.

나아가서 또한 이것은 비단 대순진리를 신봉하는 도인뿐 아니라 21세기를

맞는 전세계인의 새로운 인생관 수립의 지표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도조 증산에게서 방의(發意)되어 도주 정산에게서 완성된 종지를 위시한 종교사상의 체계를 증정사상 또 나아가서는 증정학이라고 호칭하게 되기를 다시 희망한다.

IV. 結 語

1. 인간생활의 극치(極致)

20세기말에 처해서 21세기에의 새로운 희망으로 살고 있는 오늘의 한국인 그러나 희망차다고만 할 수 없는 IMF체제의 찬바람 속에 살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을 생각하면 만감이 교차하는 것을 금치 못한다.

그러나 우주의 대도는 불공평한 것이 아니어서 오늘의 한국인이 당하는 시련은 자업자득의 우리들 스스로의 잘못에서 기인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기에 그렇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치솟을 수 있는 힘은 정치, 경제, 사회면에서의 개혁, 개선, 안정으로 올 현실면과 함께 정신면에서의 안전하고 완전한 기초공사적 인생관의 정립에 있다고 할 것이다. 밥만 먹고 향락하고 여행하고 레저하고 하는 것, 그 본능적이고 육체적인 즐거움으로 일생을 누린다고 하던 인생관의 결과가 오늘 우리의 목덜미를 누르고 있는 IMF를 위시한 국제적 금융업자들에게서의 부채뿐인 결과인 것을 심도있게 인식하여야 한다.

여기에 우리는 대순사상의 목적에서 말한 무자기(無自欺)의 정신개벽 더 나아가서는 지상신선실현의 인간개조가 있어야 하는 것을 고조하고 싶은 것이다. 그것은 바로 도통진경의 구현 그것이니 진리에 입각하여 도에 통해서 진경의 마음오로 정신이 개벽된 인간 그것이 인간생활의 극치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대도를 통한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도 없고 도둑질을 할 수도 없다. 술마시고 타락하여 주(酒)와 색(色)과 잡기, 무슨 필로폰이니 몰핀이니에 빠질 수 없고 악한 일은 돈이 생겨도 할 수 없고 착한 일은 제몫이 상해도 하지

않을 수 없다. 법과 질서의 규칙에 틀린 일은 할 수 없으니 도란 해와 달과 같이 공명정대하기 때문이다.

도가 통했다고 해서 생업을 저버리고 가족을 멀리하고 이웃과 담을 싸는 도인을 현대는 요구하지 않는다. 인간과 함께 어울리고 세속에 살면서 청렴한 그런 도사, 그런 신선, 그런 대인, 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대순의 중정사상임을 확신하는 것이다.

오늘 한국사회는 을유년 해방이후, 유입된 외국의 종교와 외국의 신조, 풍조 때문에 음양5행의 도를 잊어 버리고 충효의 도를 팽개쳐 버렸다. 3강도 5륜도 석기시대의 유물마냥 되어버리고 예의, 염치와 체면, 범절도 휴지장의 문서가 되어 버렸다. 귀신 도깨비의 전설의 고향이 TV에 유행하고 처녀가 배꼽을 내어놓고 여자들의 두팔뚝 드러낸 의복이 유행한다.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의 사는 길, 도인지 아닌지 조차도 모르고 꼭두각시 괴뢰(傀儡)가 되어 살고있다.

오늘에 대순사상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정말 문자 그대로 진멸지경(殄滅之境)에 이른 것이 오늘의 시대에 여기에 진경(眞境)을 찾아 도를 닦고 도통하는 군자와 숙녀가 속출될 때 개인도 살고 나라도 살 것이니 인간생활의 극치로서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행, 도통진경의 대도를 세우고 닦는 운동이 오늘의 국가사회에 일어나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정신개혁일시 분명하다.

다시금 말하거니와 이래서는 안된다. 이대로는 안된다. 구천, 옥황 양위 상제가 남기신 중정사상의 증정확이 빛을 발휘하고 도력을 펼쳐서 오늘의 인간을 개조하고 구제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2. 세계개조의 대이상(大理想)

어느날 C일보 문화면에는 온 페이지에 걸쳐서 프랑스인의 4분의 1은 불교의 윤회사상을 믿는다고 크게 소개하였다. '기독교는 공산주의가 성할 때 그것을 막는데는 필요했어도 오늘의 인류가 갖는 정신적 고뇌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고 불교의 윤회환생을 통한 교리가 더 적절한 것 같은데서 끌린다

는 것이었다.

또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학보에서 어떤 교수는 오늘의 인류에게 서구의 사상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고 하고 앞으로의 자연과학도 유교사상에서 오는 무궁(無窮)이라는 토대 위에 입각하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또 불교의 윤회와 인과를 이해하지 않고는 오늘의 난제를 풀어나갈 수 없다고 단언한 일이 있었다.

서구인이 서구사상으로서의 인류구제를 포기하고 동양사상을 찾는다는 것은 서구인이 정신적으로 더 좀 진화 발달해가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어디 그뿐인가 덴마크의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닐스·보어⁶⁰⁾ 같은 이는 태극사상이 좋아서 자기집 대문에 태극마크를 그려붙이고 자기 코트 가슴에까지 태극마크를 수놓아 다녔다고 한 일은 세계가 다 아는 일이다. 더우기 그가 그보다 1년전에 노벨상을 받은 상대성 원리의 발견자 아인슈타인에게 자기의 이론 상보성(相補性) 원리로 논쟁을 벌여 7년동안 다툼 끝에 아인슈타인의 항복을 받았다는 일화 또한 과학계 인사들은 다 아는 일이다.

이런 말을 왜 하느냐하면 道라는 개념이 없는 지역의 사람들이 지금 21세기부터라도 도를 배운다고 하면 그들의 현실에 입각하여 발달한 자연과학과 함께 그 얼마나 새로운 정신의 개혁과 사회의 개조가 있을 것이 아닌가 지구 시민의 하나로서 희망하고 또 소원하는 바이다.

이제 세계는 열전의 전쟁을 하는 대신 경제의 경쟁으로 그것을 대신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또 사상적으로 대립되어 있던 공산주의가 부전패(不戰敗)로서 역사에서 퇴장한 이때 과연 21세기의 지구세계를 개조하여 대순의 교의에서 말하는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세계개혁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의 대순사상 말고 또 무엇이 있는가 묻고 싶다.

컴퓨터와 로봇트가 또 핵무기와 반도체 산업이 인류의 현실생활을 편리하게 해줄 것은 틀림없지만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갈 인생의 참길, 그 진도

60) bohr Niels Henrik Oavid(1885~1962) 덴마크의 물리학자 1922년 노벨물리학상 받음

(眞道), 진법(眞法)은 어디서 구할 것인가 생각해도 그것은 아득하기만 하다.

근일 나오는 미국영화를 보면 과학무기의 공상(空想)과 유령, 귀신의 괴기담이 아니면 우주타계(他界)의 괴상한 인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아무런 예술성도 흥미도 없는데 이것을 보아서도 그들이 현실이 아닌 정신계를 동경하고 흠모해도 아는 것이 그것뿐이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참으로 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들이 측은하다고 할 수밖에 없으니 앞으로 우리의 동양사상 그 가운데도 무·태극 음양양의와 4상, 5행, 8괘에 입각한 대도(大道)를 가르쳐주어야 할 우리 동양인 전체의 의무감조차 느끼는 것이다.

21세기의 세계 개조의 원리 원칙을 대순사상으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지구세계는 정신적 파탄으로 진멸(殄滅)할 수 밖에 없다고 넉넉히 말할 수 있는 소이(所以)가 여기에 있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외교와 안보를 음양합덕으로 완화하고 인류사이의 교류를 신인조화로 역사의 흐름 속에 쌓인 원한을 청산하고 새로운 평화를 수립하자면 해원상생으로 될 것이며 그리고 새로운 자유 평화의 신세계로서의 개혁이 도통진경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사명감으로 대순진리의 교단과 모든 도인, 중정사상의 사도들이 새로운 교화와 포덕의 계획을 세우고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가장 세계화 할 수 있는 대도(大道)의 광명을 동서반구 6대주에 비추어야 할 시기가 바로 오늘이 아닌가 한다.

일찍이 로마인들이 외치던 것처럼 LVX ET ORIENT (빛은 동방에서)란 말이 21세기의 세계에 울리고 있다.